

예수님께서 가졌던 바리새인들의 생활과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인 우리도 그 일과 생활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청교도들의 신앙생활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행방하지 아니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57호 2013년 11월 2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신앙과 삶 조망할 통전적 정보 추구

바나리서치, 디지털 정보화시대와 신앙함수간 상관관계 설문조사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e북, 뉴스피드스, 모바일 앱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정보 기기들은 불과 수년 전에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가 교차(intersect)하고, 충돌(collide)하고, 상호작용(interact)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디어 컨버전스'(media convergence)라고 설명된다.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스트리밍 오디오(streaming audio)와 비디오(video), 블로깅 소프트웨어(blogging software), 사진, 다른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종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기술의 진전은 개인들의 정보유통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가져왔고, 아는 개인들로 하여금 적은 비용과 투자로 보다 많은 정보자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신으로 정보의 보편화를 이룬 기존의 인쇄매체를 대체하는 정보화시대의 중심으로 점점 더 디지털 정보들이 실재없이 동시에 유입되고, 확장되며 공유되고 있다. 한마디로, 더욱더 세상은 정보의 홍수들로 복잡해지고 정보에 뒤처지는 아날로그 세대는 점점 더 소외되어지고 있다.

바나리서치는 이러한 디지털미디어들의 범람 속에서 현대인들은 정보들을 검색하고(Scrolling), 훑어보고 걸러내면서(Skimming) 그리고 마침내는 요약(Synopsizing)하면서 살고 있다고 분석한다(3 Trends Redefining the Information Age).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은 새로운 차원의 정보격차 즉, '컨버전스 격차'를 생산한다. 컨버전스 격차는 컨버전스 문화 속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초래되는 격차이다.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세대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에서 젊은 세대, 특히 밀레니엄 세대는 이미 기성세대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마이스페이스와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는 개인들에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용자들은 텍스트(text), 이미지(images), 사운드(sound)를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을 콜라주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하이퍼텍스트 링크(hypertext links) 또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성인들이 느끼기에 삶 자체가 더욱 복잡하다는 첫 번째 설문결과를 찾아냈다. 즉 성인들 중 2/3는 삶의 디지털화, 경제적 압박, 가족의 분열, 도덕과 가치관의 변화 등등 많은 요소들이 삶 자체를 더욱 더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간 소득이 2만달러 미만인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 중 79%는 복잡다

디지털정보시대 3대 특성, 검색-훑어보기-요약!



정보 홍수시대를 사는 현대교회는 새로운 소통도구와 방식을 사용해 복음전파에 매진해야 한다.

난해진 삶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고백한다.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소외되고 안정되거나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문에 응하고 있다.

신앙인들 역시 정보화 시대에서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복음주의자들 중 71%들은 연예인들의 일상이나 가십 거리를 토해내는 일반 정보에서부터 재정

이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급 정보들의 범람이 점점 더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돼 살고 있는데, 너무 많은 문화적 정보로 인한 요구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3편으로 계속)

지구촌 보건 상황 개선!

뉴욕타임스 사설, '환경보호와 여성권익증진 통해 성과'

세계 보건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위생상태가 나빠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한 개발도상국가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구촌 어린이, 여성들의 열악한 보건 상태를 개선하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일련의 시도들이 성과를 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사설을 통해 보도한다(The Race to Improve Global Health).

지난 20년 동안 세계 전역에서 질병에 의한 사망자와 질병 발병자의 수가 감소했다.

특히 출산 10만 건 중 사망하는 산모의 비율인 산모 사망률(maternal mortality rate)이 1990년 400건에서 2010년 210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최근까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매년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사망하는데, 이는 여성 사망의 주된 이유이다. 또한 열악한 모성보건은 매년 아기가 출생한 지 1개월 안에 일어나는 신생아 사망 300만 건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전문가의 사, 간호사, 산파의 도움을 받는 개발

있는 질병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망사례 대부분이 극빈국에서 일어났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유아 9명 중 1명은 5세가 되기 전에 죽는다.

특히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모유수유로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보다 오염된 물과 불결한 위생으로 인해 아기가 분유를 먹다가 영양실조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 따라서 유니세프와 같은 인도주의 단체는 적절한 보호와 지원체계 아래에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다. 모자감염의 위험 때문에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다

따라서 '새천년개발목표'는 2015년

탈수증, 항생제 공급, 모기장 보급, 보건당국 노력 필요

모유수유 에이즈 감염보다 불결위생 영양실조 사망 더 많아

도상국 여성은 66%에 불과하다. 하지만 2015년까지 100건으로 줄이자는 지난 2010년 UN이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모 사망률이 높은 여러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산모를 위한 의료 혜택이 열악하고, 출산을 도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경험 많은 산파의 수가 부족하며,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피임 기구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한데, 특히 젊은이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5세 미만의 유아 사망률도 지난 20년 동안 현저히 감소했는데, 1,000명의 유아 당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가 1990년 87명에서 2010년 51명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 전 세계에서 5세 이전에 사망한 어린이 690만여 명의 대부분은 예방할 수

까지 연간 5세 미만 유아 사망자의 수를 430만 명으로 줄이자는 것이었다. 반가운 소식은 방글라데시와 리베리아는 이미 이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설사에 의한 탈수증과 폐렴을 치료할 항생제 공급, 말라리아를 막을 수 있는 모기장 보급 그리고 지역 보건 당국의 노력이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AIDS를 치료할 항바이러스 치료법을 원하는 이들은 많은데 비해 이 치료법의 보급 상황은 원활하지 못하다. 에이즈는 지난 10년 동안 보건부문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위협요소였다. 에이즈 감염자의 7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고, 에이즈 고아의 80%도 이 지역에 있다. 2010년 현재 에이즈고아는 1,730만 명에 이르고 있다.

(2편으로 계속)



2면

교회는 항상 살아 있는 역동적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3면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특별기고 노봉린 박사

제11회 시각 장애인 장학기금 마련

찬양가의 밤

"우리의 실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시편 98:1)



출연진:

- 정화영 소울 가요금 합주단 (단장 장경선)
- 김현정 시인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 김형직, 살롬교회)
- Denise Aldriton 에이레네 찬양대 (지휘 류봉수, 나침반교회)
- 한광호 (톱 연주) 카리스 중창단
- 김승기 (색소폰)



1차 공연: 남가주 살롬교회
일시: 11월 10일(주) 오후 4:00
장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el. (310) 787-1004

2차 공연: 나침반 교회
일시: 11월 15일(금) 오후 7:30
장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el. (562) 691-0691



후원: 나침반 교회, 남가주 살롬교회, OC 교회협의회
주최: Hope Sight Mission (비전시각장애인센터)
Tel. (213) 480-8560, (213) 392-1030



시론

맑은 소리 3번에 가던 길 잠시 멈추어



은하근 목사 (참사랑교회)

오랜 만에 어머니의 땅을 밟고 호흡합니다. 고국에 도착하자마자 읽고 싶었던 책 한권을 샀습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목사가 쓴 "2020, 2040 한국교회의 미래지도"입니다. "지속가능한 한국교회를 위한 최초의 미래학 보고서, 다가올 10년 한국교회 한 번도 접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몰려온다.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인간에게 주신다"는 커버의 글은 젊은 아이들 말처럼 '필이 꽃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민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목회자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미래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여 오늘의 변화의 흐름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그 변하고 있고 변하여 가는 흐름 안에 있는 교회에 애정어린 경고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며 전도에도 점점 한계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천주교는 186만명(1985년도 기준)에서 514만명으로 성장했고 불교는 1,027만명으로 늘어났고 심지어는 이단들마저 성장했고 무교(점점)도 매년 40%씩 성장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2005년도에 정부가 시행한 조사를 분석해보면 기독교인 수는 대략 870만(18.7%) 정도이다. 이는 대략 150~25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단들도 포함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숫자는 2005년을 기준으로 620만~720만에 불과하다. 1985년도에 16%에서 1995년도에 19.7%로 성장했다가 2005년도에는 18.7%로 감소했고 그 감소는 지금도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갱신하지 않고서는 2050~2060년경의 순수 기독교인 인구는 300만명대로, 주일학교는 30~40만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등등 막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통계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스로 점쟁이가 아니라 모든 사회과학적 방법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아직도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부흥이 일어난 한국교회라는 신기루"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근거없는 낙관론" 하에,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변화에 대한 준비에 게을리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변화, 한계, 위기, 대처, 극복" 등의 단어가 실감나게 생생하게 살아있어 계속 고개를 끄덕이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위기관리 능력 - 근거없는 낙관론부터 버려라. 변화의 시대에는 교회와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현장 목회자로서 급속하게 진행되는 변화 안에서의 교회와 목회의 대안과 내용을 찾아야하는 부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변화 안에 깨어있고 준비해야 한다는 경고만큼은 함께 하기에 너무나 분명한 공감대가 있어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함께 읽으면 합니다. 저도 섬기는 제단으로 돌아갈 때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저는 저자와는 일면식도 없고 책 선전하는 영업직도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하여 오랜만에 목회에 큰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1) 깨어 변화의 흐름을 읽어라 느끼라. 2) 다가올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할 대안을 준비하라. 3)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목회 사역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변화를 준비하라. 4)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5면으로 계속)

교회는 항상 살아 있는 역동적 유기체가 돼야 한다!

리더십저널, 어웨이크닝교회 닐콜 목사의 교회제도화 방지원칙 소개

교회를 다니는 데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혼란을 느낀 적은 없는가? 성도 자신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성전임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필연적으로 끊임없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성도를 '교회'로 양육하고 세우지 못한 채 기능적인 교회의 명목만을 유지해왔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도 현대교회의 상황을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겠지만 분명 많은 교회가 교회 배가운동과 제도로 인해 기관화, 제도화의 덫에 빠졌다. 한마디로 기능적인 교회의 명목은 곧바로 교회를 "제도화"의 덫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적 확장에 결국 제동을 걸게 된다.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교회의 재탄생'을 부르짖는 닐 콜(Neil Cole)목사는, 도시의 신세대 젊은이들을 겨냥한 어웨이크닝교회(Awakening Chapels)와 '교회배가협회'(CMA)의 설립자다. 교회 배가 협회는 단 9년 동안 40개국의 45개가 넘는 도시에서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교회 배가운동의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또한 교회 배가협회의 실행 책임자로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역에 필요한 자원과 훈련을 제공해 건강한 제자와 지도자와 교회와 배가운동이 일어나도록 섬기고 있다.

닐 콜목사는 교회가 항상 역동적인 유기체가 돼야만 '제도화'의 덫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 성경에서 우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신앙적 노력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때, 우리는 즉시 신앙을 기관화하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우선권을 엉뚱한 곳에 두는 것이 문제다.

2. 관리하려 하지 말고 이끌라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관리를 기대하고 지도자가 그 기대를 충족하면 조직은 곧 하나의 기관이 되어 버린다. 관리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지도자의 역할은 변화와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3. 고용인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성경에 초점, 기관관리가 아닌 이끌어야 자원봉사로 사명에 전념, 비주류에 머물기 구조수평화 상호의존, 그리스도의 임재 중요

하게 하라

유급교역자가 늘어날수록 교회에 산은 압박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배가를 통한 교회의 성장은 곧 사업체 운영의 일부로 변질하게 된다. 기관이 되어버린 교회는 결국 사역자를 고용만 하고 또 그들을 감독하며 사업놀이로 빠져버리게 된다.

4. 보호하지만 말고 행동하라

기관화된 교회는 교회와 그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규정을 외박가 아닌 내부로만 시선을 돌리고 세상과 문화를 변혁하려는 시도는 멈추게 된다.

5. 돈이 아닌 사명에 전념하라

재정이 불어날수록 대담무쌍한 행동은 줄어들고 선교에 투자하기 보다 재산을 지키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6. 지도자도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관이 돼버린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게 된다. 진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이라는 허울만 쓰고 다니게 된다. 사람들은 종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좀처럼 취급당하기를 거부한다.

7. 프로그램도 전략도 업적도 아닌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교회 전통과 선례가 이르렀다는 변명을 듣게 된다. 기관화된 교회는 무엇을 하든 정해진 정책과 진행 방침을 따른다. 그리고 기관화된 교회는 성령의 임재와 관계없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8.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머물라
교회가 세간의 주목과 인정을 받게 되면 어느덧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쓰게 되고 더 이상 비주류가 아닌 주류로 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

9.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인 것을 명심하라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교회에 더 많은 교인과 재정을 더하는 것이 성공적인 목회라고 스스로 기만하기 쉽다. 더 큰 기관을 세우는 게 유일한 소망이자 성공의 그림이 되는 것을 스스로 피해야 한다.

10. 구조를 수평화하고 상호 의존하라

커진 교회라는 기관을 유지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 여러 상하 조직이 생긴다. 이는 기관의 몸집을 불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결국 이상의 점점 목록에 앞서 건 강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부립지는 것이 우리 목회자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진정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고민하며 이를 기회 삼아 우리 자신의 교회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1면에서 계속)

2010년 현재 3,400만 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감염자 중 210만 명은 15세 미만의 어린이이다.

현재 에이즈 환자 1천만명이 항바이러스 치료법을 받고 있는데, 2015년까지 1,500만 명으로 늘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국가의 2,600만 명이 이 치료법의 혜택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AIDS 치료에 투입되는 약품과 인력을 재배치해야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세계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천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환경보호와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8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평신도들을 믿고 영혼을 맡겨라!

리더십저널, 교회컨설턴트, 조지 F. 칼 목사의 평신도중점 소그룹 운영원리 소개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교회컨설턴트, 칼 F. 조지 목사는 전 세계 수많은 개 교회를 방문해 교회를 진단했다. 또 지금까지 100여개 교단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를 훈련했다. 또한 컨퍼런스의 기조연설가로 자주 강단에서 오고 있다.

그는 미래 교회 패러다임으로 '메타교회' 이론을 소개한다. 메타교회란 유연한 소그룹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교회로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해 스스로를 변혁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그는 메타교회관을 가지고 리더십 개발 센터(Leadership for Ministry Inc.)를 만들어 최신의 목회원리와 비결들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급변하는 사회에 교회가 적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미래교회가 메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메타 교회'는 목회방법에 관한 사고의 변화와 하부 구조의 형태변화를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메타 교회의 원리들을 활용하면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교회의 현저한 두 가지 특징을 가정 단위의 소그룹 운영과 공동 예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그룹 운영에 평신도를 믿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에서 소그룹을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두 말할 것도 없이 목회자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가장 익숙하고, 소그룹을 인도함에도 당황하거나 능력의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목사만한 사람은 없다. 목회자라면 당연히 소그룹을 인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교인들에게 리더 역할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래교회 패러다임 '메타교회', 소그룹 운영과 공동예배가 특징 소그룹 1차적 목양자는 목사 아닌 소그룹 리더임을 인정해야

물론 처음 교회를 소그룹을 기반의 교회로 구성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목회자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을

모아 한 그룹을 만들어 목회자가 직접 인도하게 된다. 그러나 그 처음 그룹 가운데에서 양육그룹의 귀중

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목사는 그들에게 집중해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신앙인들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신앙이나 영성 즉 양극화된 세상에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알맞는 정보들을 잘 찾지만 한다면 신앙과 문화의 흐름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이번 설문 결과의 2번째 결과를 도출한다. 바로 사람들이 일단 정보화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동시에 쏟아지는 정보들을 훑어보고 걸러내려는 사실이다.
결국 아침에 읽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신선한 정보는 저녁때가 되면 이미 낡은 정보가 되는 정보적 변시대에서, 미 성인들 중 70%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시간을 내서라도 디지털 미디어들을 통해 정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쇄매체 즉 책이나 신문을 통한 정보 획득은 점점 더 도태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책들이 너무 길다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얼마 전 시사전문 매거진 뉴스위크가 과감하게 출판되는 매거진을 포기

하고, 디지털 매체에만 전념한 것도 이처럼 변화된 소비자들의 성향을 읽었기 때문이다.
결국 밀레니엄 세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세대가 짧막한 형태로 문화적 통찰이나 구별을 할 수 있기를 점점 더 선호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되도록이면 한번 클릭으로 양질의 정보들을 한 눈에 파악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접근이 용이하며 간편하고 빠르게 정보의 바다에서 디지털 미디어라는 패속정을 타고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바나리서치는 자연스럽게 3번째 설문결과를 이끌어낸다. 즉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나 사실에만 머물지 않고 신앙과 삶을 조망할 수 있는 통전적인 정보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정보 과잉시대에서도 사람들 즉 소비자들은 점점 더 현명해진다.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의미가 되 어질 수 있는 정보에 목말라한다. 아무리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그리고 이제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wearable) 디지털 기기들로 무장한다고 해도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해지는 미국인들 3/4는 정보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밀레니엄 중 90%, 미혼자들 중 85% 그리고 18세 미만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중 80%가 의미 있는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크리스천들 중 79% 역시 자신들의 신앙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찾아 나선다. 자신들이 일상에도 도전받는 정보나 쟁점들에 신앙으로 대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무엇보다도 교회공동체는 새로운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세대를 선교적 섬김의 우선 대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전히 종교적 욕구를 가진 이 세대에 그 방식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블로그나 SNS 등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훈련이 끝나면 각자가 소그룹을 맡아 사역하게 하고 자기 소그룹을 인도하는데 정념하게 해야 한다. 이때부터 목사는 일반 교인들로 이뤄진 소그룹을 인도하기보다는 각 소그룹을 맡아 리더를 훈련시키고 관리하는데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이는 교회 내의 여러 소그룹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모든 소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들과 소통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리더 훈련이어야 하지, 각 소그룹에 일일이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위임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그 소그룹의 1차적 목양자는 목사 자신이 아니라 그 그룹의 리더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들이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에너지와 돈을 투자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소그룹 리더가 그 소그룹의 목회자임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평신도들이 목회 사역을 원치 않으리라는 생각, 힘들어 하리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평신도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소그룹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뿐 아니라 교회의 어떤 다른 직무나 직함보다 소그룹 리더로서 목회 사역을 더 좋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물, 에너지를 투자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소그룹 사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한국 교계 원로 박종순 목사는 지난 2010년 34년간 담임한 충신교회를 은퇴했다. 현재 건강한 교회와 균형 잡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한국교회지도자센터를 만들고 대표로 사역하고 있으며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이사장 등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예장통합의 총회장과 KNCC,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설교집 '잃어버린 사람들'을 비롯해 30여 권과 '교회 성장과 성경공부' 등이 있다. 본지는 박종순 목사의 동의를 얻어 저서 '깨끗한 부자' 중에 실린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고치시는 예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종점에 다다른 느낌이 든다. 우리 시대가 임체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각 병원 대기실은 환자들로 초만원이 이루고 있고, 세상은 불신과 부정부패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교육, 경제, 정치 등 사회 각 부분이 부정부패로 병들고 있다. 한 마디로 인간이 병들고, 역사가 병들고 환경이 죽어가고 있다.
마음 놓고 물 한 그릇 마실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식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물은 저 혼자 썩는 법이 없다. 역사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다. 그것을 오염시키고 썩게 하는 장본인이 있는 법이지 역사가 저 혼자 썩고 문명과 문화가 스스로 썩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병들게 하는 주범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정형적 고통과 비극은 자업자득이다. 총체적인 질병의 근원은 바로 인간 자신인 것이다. 인간의 죄성이 인간 자신과 사회, 그리고 자연환경을 썩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병든 존재의 간절한 소망은 치유에 있다. 병든 육신, 병든 사회, 병든 역사도 치료받기를 원한다. 심지어 자연환경도 건강하기를 소원하는가 하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유한 영광의 자유"(롬8:21)를 얻고자 한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치료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출구가 없다"고 절망했다. 우리의 정황은 출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출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출구도 있고 길도 있고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다.
예수는 세 가지 면에서 좋은 의사다.
첫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신다. 주님은 어딘가 병들었는지, 왜 병들었는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둘째, 모든 병을 치료하신다. 인간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다. 의사마다 전문분야가 있다. 전문분야가 아니면 손도 대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고치기 못할 질병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다.
셋째,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셨다. 의술은 인술이다. 단지 기술만으로 좋은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좋은 기술에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주님은 따뜻한 마음을 소유하신 의사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그리스도도는 우리 병든 육체도 고치시고, 병든 사회와 병든 역사, 병든 문화도 치료하신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났고 성난 파도에 "잠잠하라"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졌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창조되었다. 바로 이 능력이 우리 시대와 역사와 인간을 치유하신다. 우리에게 고민이 많다. 그러나 해결 못할 고민은 아니다. 우리에게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해결 못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병들었다. 그러나 못 고칠 질병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고 고치고 치료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믿음이다.

세 계 청 년 선 교 축 제

지킴 DEC. 25TH-28TH

WWW.GKYM.ORG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이사야 40:3

MAIN SPEAKERS

스티브 더글라스 CCC 총재 유은성 CCM 가수 헨리 오롬비 로잔운동 체어맨 박형은(JIM-BOB PARK) 중앙 선교 교회 담임 목사 크레이그 오트 트리니티 선교교 교수 최마크 IN2 교회 담임 목사 로렌 커닝햄 국제 예수 전도단 공동 설립자 김정화 배우 김은열 (JOEL KIM) DEVOTION 교회 목사 티모티 레니악 골든케빌 교수 스타필드 크리스찬 찬양밴드 K.S. SAM C국 선교사, 교수

주관/주최 : GKYM INTERNATIONAL
날 짜 : 12월 25일(수) ~ 28일(토)
장 소 :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대 상 : 18세이상 청년 및 대학생

등록비 :
1차 마감: 10월 31일까지 \$200
2차 마감: 11월 30일까지 \$250
3차 마감: 12월 23일까지 \$300

등록문의: GKYM USA
Tel: 917-929-GKYM(4596)
e-mail: rochestergkym@gmail.com
*온라인 등록 www.gkym.org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의 황제: (1) 도미티아누스(요일 4:1)

도미티아누스(51-96)는 네로 황제의 친위대 대장이었고 유능한 장군으로 네로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 베스파시아누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로마제국의 열한 번째 황제(81-96)로 등극하였다. 형 티투스(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로마의 열 번째 황제로 등극함)와는 11살의 나이 차이였다. 형 티투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음에 비해 도미티아누스는 어릴 때부터 황제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집착했을 정도로... 형은 아버지에 의해 공동 황제가 되어 황제에 대한 수업을 받았으나 그는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기에 형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국 황제가 되어 스코틀랜드를 합병시키려고 당시의 출중한 장군을 파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유는 거의 뜻을 이

루려는 순간에 도나우 강에서 벌어진 다키아와의 전투로 많은 병사들을 잃게 됨으로 부득불 그곳 방어를 위해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일은 원로원으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다. 항상 원로원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때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로마제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자존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원로원과 관계에서 불편했던 이유는 스스로 종신제무관의 지위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종신제무관이라 함은 이 시대 세금을 관장하는 국세청 같은 자리인데, 특히 재무관은 원로원의원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다. 고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원로원의원들을 추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까하는 노파심 때문이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들을 싫어하도록 되기 때문이다. 당시 원로원 위원은 600명가량 되었는데 이들과의 관계가 황제에 있어서 성공의 지름길이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황제는 이

런 문제를 간과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여 주요, 하나님(Dominus et Deus)으로 칭하게 했다. 인간은 누구나 힘이 주어지게 되면 신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게 된다. 이런 본능은 지금도 동일하다. 다만 민주국가에서는 본능을 자제할 뿐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주요, 하나님이 부르라는 것을 기독교 신자들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왕의 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다(90-96AD). 그 중에는 친척도 있었다. 누님의 딸인 플라비아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던 도미티아누스는 그들을 양자로 입적하여 황제 교육을 받게 했다. 그런데 플라비아 부부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일로 95년에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 결국 황제의 양자가 되었던 두 아들은 없던 일이 되었고, 조카의 남편 클레멘트는 사형을 당하였고, 그의 아내 도미틸라(Domitilla)

를 포로미아에서 배로 한 시간거리인 벤톨테네(Ventotene)섬으로 유배를 보냈고, 그 때까지 생존하여 성도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사도요한은 밧모 섬으로 귀향을 가고 말았다. 그는 부인 도미티아가 배우 플라비스와 바람을 폈다는 소문을 듣고 대노하여 배우를 죽였고 아내를 유형을 보냈다. 그 후 아내를 유형지에서 불러들였으나 형식적 부부로 지내야했다. 그러던 중 조카 율리아(형 티투스 황제의 딸)를 사랑하여 그를 임신시켰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조카 율리아를 지극히 사랑했으나 그녀는 아이를 유산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과정에서 아내 도미티아는 남편을 질투하여 그를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96년 근위대장 2명과 관리들 몇 명, 그리고 그 중에는 자신이 죽인 사촌 클레멘트의 재산관리인까지 가담하여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암살했다. 그는 죽기 몇년 전인 93년부터 편집증과 신경과민에 시달려 닥치는 대로 원로원 의원과 관리, 기

사, 황실관리인들을 처형내지는 귀향을 보내는 공포어린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원로원에서는 반겼다. 봉급을 110년 만에 인상해준 군인들은 안타까워했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반긴 원로원의원들은 재빨리 도미티아누스에게 기록 말살 형에 처했다. 기록말살형을 네로황제도 받았는데 황제로서의 모든 업적을 기록에서 없애버리는 형으로 당시 문화에서는 굉장한 저주였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대로 존속되었는데 그것은 콜로세움을 완성했다는 석판이었다. 콜로세움은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였기에 시민들은 원로원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신이 되고자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로마 근교 리에티(Rieti)에서는 지금도 아버지의 이름의 물이 생산된다. 허리 아픈데 좋다고 가게주인은 그 물을 적극 추천한다. 그 물을 마시며 그가 건설한 오스티아 간선도로를 거닐며 그를 생각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했던 어리석은 황제들...

푸 / 른 / 초 / 장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담임)



사람은 혼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직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연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기술을(기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행복하고 보람됩니다. 그러나 사람 잘못 만나면 스트레스 받고 불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시고 삶의 동반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골치 아픈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는 서로 마주 볼수록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자비로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계획하시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행복의 길을 진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

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 죄에서 구원받고, 2. 병에서 구원받고 3. 죽음에서 구원받고 4. 가난에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육적인 신자에 그칩니다. 영적인 참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동거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3편의 시온의 산들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축복과 행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예서는 형제이지만, 즉 육적인 형제임에 틀림없지만 영적인 형제가 되지 못함으로 수천 년간의 전쟁의 역사가 끝이 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다릅니다. 이것은 항상 불안한 동거입니다. 배부르고 아쉬운 것 없으면 순간적으로 조용할 수는 있으나 함께 영생하고 함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혈문의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은총과 행복의 공동체는 불가능합니다. 시편 133편의 시온의 산들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모든 축복과 행

피조물들끼리의 연합과 동기는 축복과 행복의 삶인 것입니다. 형제라도 다 다릅니다. 쌍둥이라도 다른 점이 많습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타이어와 핸들이 다르다고 틀립니까? 아닙니다. 다르다고 틀리다고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이어와 핸들이 동거해야 합니다.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동거해야 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이 동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도 형제입니다. 우리 중에는 등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등산 이라하면 전혀 취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게

2. 행복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라도 사람이 없으면, 우애가 없으면, 존경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대접할 줄 모르는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되 서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되 서로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랑도 먼저, 존경도 먼저, 우애도 먼저, 대접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사랑실천은 불가능합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힘듭니다. 손님 대접하려면 몇날 며칠 시장보고, 그리고 대접하고 나면 뒤처리와 정리 가 보통일입니까? 게으른 사람은 섬기는 일, 대접하는 일을 못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게으른 사람은 잘 못하기 힘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게으른 사람, 돈내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Happy Together!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지금부터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인류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뛰시고 달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도 인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해피투게더 HAPPY TOGETHER

(시 133:1-3, 롬 12:9-13)

1.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는 한 핏줄입니다. 형제는 한 가족입니다. 형제가 아닐 때는 혼합은 가능하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될 수 있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이 교회로부터,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간의 불화와 전쟁의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지만 예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도 명목상 신자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형제, 영적인 형제는 될 수 없는 법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우리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틀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하고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피는 같습니다. 그러기에 형제입니다. 형제라도 연합하지 않으면 원수가 됩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독선주의, 분리주의자는 연합이 어렵습니다. 욕심이 연합의 적입니다. 욕심은 행복을 파괴하지 이루지 못합니다.

행복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Happy Together! 우리 함께 행복합시다. 지금부터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인류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뛰시고 달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도 인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On Campus Courses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2013년 10월 21일 - 12월 13일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Korea

• Nov 4-8 (11월 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 -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사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AB1266 법안폐지-기적을 만들시다!

지난 8월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인 제리 브라운에 의하여 통과된 매우 사악한 AB1266법안을, 주민투표를 통해 완전히 폐지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AB1266은 꼭 폐지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정치가들이 친동성애 운동까지 벌이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시민들 뒤에서 자기들끼리 주지사과 함께 통과시켜버린 이 법안은 너무나 사악한, 그 여

이 법안은 4-5살짜리 유치원생부터 시작하여 12학년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적용되는데, 이 법안을 악용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어떤 부모들에게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공립학교에서까지도 특별히 중고등학교에서는 더 많은 성폭행과 강간이 생길 것이며, 더 나아가 앞으로는 초등학교에서도 성적 문란이 더 확산되고, 이로 인해 여자아이들의 임신은 점점 더 많아질 뿐 아니라 임신을 하는 아이들의 연령은 더욱 어려질 것입니다.

전혀 안된다면, 우선은 그냥 놔두는 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확실하게 칸을 많이 넣어 간 서명은 무효화 처리가 됨으로 줄로 그어주시고, 잘못 서명하신 분께 새로운 칸에 다시 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서명된 칸은 바로 밑의 칸을 사용하기보다는 깨끗한 그 아래의 칸에 서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2: 주소의 거리 이름을 쓸 때 Ave., Dr., St. 등으로 약자를 써도 되는지요?

으로 보내야 합니다. 11월 4일 혹은 5일에 보내는 분들은 되도록 Overnight으로 청원서를 보내기 바랍니다. 본사에서 적어도 11월 6일까지는 받아야 검토를 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원서를 보내실 주소는 북가주에 계신 분들은 청원서 아래에 나온 Sacramento 주소로 보내기 바랍니다. 남가주에 사는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Calvary Chapel Chino Hills
AB1266
4201 Eucalyptus Ave.

학생들의 사생활 권리 철저히 침해 자녀들 성적체성에 대한 가치관 무너뜨려 법안폐지 서명서 11월 6일까지 도착해야

면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모두에게 해로운 법안입니다.

왜 AB1266은 꼭 폐지되어야 하나?

1. AB1266은 학생들의 사생활 권리를 철저히 침해합니다.
2. AB1266법안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진 "학생들의 생물학적인 성별"에 따라 학교 시설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루하루 느끼고, 되고 싶은 성별에 따라 학교 운동 프로그램이나 학교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우리 자녀들의 성적체성에 대한 가치관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법안입니다.
4. 어린아이들의 영혼과 육체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악한 법입니다.



서명운동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

질문1: 자기 칸을 아주 조금 넣긴 서명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자기 칸을 넣지 말라는 이유는 바로 밑의 칸에 다른 사람이 쓰는 서명이 내가 넣긴 칸의 서명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서명이 자기 칸에서 아주 조금만 넘어갔고, 그 아래 칸에 서명을 한 사람의 것에 방해가

면: 길 이름 뒤에 오는 호칭들은 미국 전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자로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 단지 모든 길 이름과 도시, 카운티의 이름은 무조건 다 풀어서 기록하기 바랍니다. 약자를 쓰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Orange County의 경우 OC라고 적으면 무효처리가 됩니다.

질문3: 두 명이 서명하는 청원서를 인쇄할 때 컬러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흑백도 괜찮나요?

답: 꼭 컬러로 하지 않아도 되고 흑백도 허용이 됩니다.

질문4: 주소를 기입할 때 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 길 이름을 쓰는 칸 안에 깨끗이 두 줄로 작게 쓰면 됩니다.

AB1266 법안 폐지 청원서 서명 마감일:
늦어도 11월 5일(화)까지 우편

Chino, CA 91710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6백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학생들이 AB1266법안에 의해 더 처참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나와서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크리스천 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또는 홈스쿨링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6백만이 넘는 잃어버린 어린 영혼들을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자녀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서는 그 6백만이 넘는 잃은 영혼들을 찾고 계시니까요.

우리들의 순전한 순종과 선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론

(2면에서 계속)

그 지혜를 땅에 파묻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고집이내어 사용하여 변화 앞에 패배주의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삼

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나라의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 확장해 나간다는 역사를 보이리라"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교권과 기득권에 사로잡혀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현실안주에 급급한 교회지도자들에게 말

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깨어 있으라"(막13:37), "준비하라"(마25:13, 25:21, 25:23).

닭이 일천번을 울어도 "너는 울어라 나는 간다"(마11:16-17)가 아니라 이 시대에 들려오는 닭우는 소리 3번에, 가던 걸을 잠시 멈

추어 주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는(마26:75), 영적인 민감성과 예민함이 무뎠지 않고 날세워 살아있게 갈고 닦는 오늘의 베드로가 우리 모두이기기를 이 가을에 소망해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기기를 기도합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한 번 드린 기도제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제목으로 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직장에서 문제없이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잘못된 일인가요?
-전화질문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같은 기도제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잘못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열매가 없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시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중요한 것은 기도 시에 믿음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이 옳은가의 질문에 예수님과 바울과 엘리야의 예를 들어봅니다.
예수님은 겹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 이 기도는 기대(Expectation)하고 기도(Seeking)하고 기다리는 것(Tarry)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마태복음 26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후12장을 보면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 즉 질병 때문에 그것이 내 몸에서 떠나기를 위하여 3년 주께 간구했다고 고후12:8 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계속 간구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인내의 기도를 말합니다.

엘리아는 아합 왕 시절에 3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가 오지 않음에 대해 갈멜산에서 기도하되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내어 바다 편을 바라보라며 손 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7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도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10번, 20번이라도 같은 제목으로 구했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매 맞고 빌립보 옥 속에 갇혔을 때 처음에는 기도만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2차 선교 여행시에 마케도나의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돌이켜 유럽의 첫 성 마케도나, 빌립보에 왔는데 그 결과는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계속 밤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신앙으로 기도할 때 탄식같은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인생의 밤중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믿고 구하고는 그 다음에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엇을 부탁할 때에도 한두 번 부탁해도 안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서 녹18장의 과부처럼 자기의 억울한 사정으로 고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반복적으로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같은 제목이지만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담치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래서 3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기대(Expectation)하고 기도(Seeking)하고 기다리는 것(Tarry)입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에

《검은 것이 아름답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고 있는 이등관 선교사의 이야기. 초년병 선교사의 좌충우돌하던 경험과 아프리카의 실제 현장을 맞닥뜨리며 가졌던 소박한 고민들을 담았다. 한 젊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부끄러움도 솔직히 고백하며 정직하고 깨끗하게 꾸밈없이 풀어낸 진솔하고 순수한 고백의 선교 이야기.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책이다.
* 이등관, 박형란의 케냐 사랑 이야기 www.kensarang.com
이등관 지음 / 264면 / 12,000원

《너와 함께 가라》
캘리포니아 Lake House(기도의 집) 대표로 있는 김정숙 목사의 간증집. 저자는 캘리포니아 호수 엘시노어에서 지치고 목이 말라 기도의 두레박으로 생수를 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울 수 있는 따뜻한 기도처를 섬기고 있다. 한 사람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이 책에는 잔잔한 위로가 흐른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인해 건널 수 있었던 시간을 따뜻하게 풀어내었으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당황하며 주님을 부를 때 손 잡아주시고 함께 올려주시는 주님의 동행 하심의 여정을 담고 있다.
김정숙 지음 / 264면 / 12,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광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다니엘 전도법》
목회자라면 누구나 갈망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전도이다. 이 책은 24년의 목회 생활 동안 전도로 몸부림쳐 온 저자가 '다니엘 전도법'으로 교회를 부흥, 성장케 한 교회 개척 수기 및 전도법을 담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이지만 때론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전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게 된다. 전도 문제로 목회와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성경적이며 구체적인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추영춘 지음 / 264면 / 11,000원

《성경 핵심 요절 2500》
'거리 전도 대장'으로 유명한 정동제일교회 윤용구 권사의 호크마 시리즈II.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저자가 성경 핵심 요절 2500여 개를 신앙의 원리, 교회 생활, 생활 문제 해결, 영적 승리의 비결, 가족 신앙 5개 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으며 또 각 단원마다 소주제를 넣어 삶의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새 생명, 새 소망, 새 비전, 새 능력, 새 영광을 받아 만든 책으로 말씀 암송과 성경 이해에 유용한 책이다.
윤용구 지음 / 544면 / 20,000원 / 사륙판

www.qumran.co.kr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Tel. 02-747-1004 **금란출판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수단의 구무즈(GUMUZ)



구무즈족은 주로 동부 지역과 서부 이디오피아 국경선의 교차지점에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대나무를 비롯한 여러 작은 나무들로 뒤덮인 평평한 들녘이 많아 부쉬-사바나(bush-savanna)로 불린다. 무성한 산림지대는 강가나 계곡 주변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구무즈족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베가(Bega)

라고 불리우기도 하며, 흑인들이라는 뜻을 가진 데구바(Deguba) 또는 산킬라(Shanqilla)라고도 불린다. 많은 구무즈족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구무즈나 산킬리인 가 이외에도 오로모족과 무역이후부터는 오로모어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 구무즈족은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여러 일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일족들은 자신들만의 토지를 갖고 있다. 또한 그것들은 개개인별로나 핵가족으로 구분되어 나뉜다.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모든 가족들과 공동 작업으로 토지를 경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토지가 같은 일족과 가족들의 공동소유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삶의 모습

사람수나 양과, 여러 향료들, 무명 그리고 담배 등이 주요 농작물이며, 모든 농부들은 자신들의 일족의 토지에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다. 농장은 강이나 언덕 그리고 도로 등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거리나 토지를 찾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닌다. 마땅한 경작지를 찾으면 남자들은 토지 외곽지역에 부속건물을 포함한 새로운 농장을 짓는다. 농장오두막은 매우 간단하게 짓지만 어린이들과 농장 주변의 야생동물 때문에 서로 떨어뜨려 짓는다. 구무즈족은 주로 촌락 안에 평생 살만한 가옥을 짓지만 수확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농장에서 지내며 토지를 보호한다.

소년이 열여섯살이 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버지의 일과 분리해 자신의 토지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 소녀들은 보통 14-16세 사이에 결혼을 하며, 그때까지

는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돕거나 가사 일을 거든다. 결혼 후에 부부는 자신들만의 토지를 경작하며 살아가게 된다. 또한 그들의 결혼은 여자형제의 교환이(sister exchange)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결혼한 남자는 상대방 여자의 가족에게 자신의 여자 형제를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무즈족은 나뭇잎과 양파, 향료 등을 섞어 만든 소스를 넣어서 포리지(오토밀에 우유 또는 물을 넣어 만든 죽)를 주식으로 먹는다. 또한 호박씨나 땅콩, 각종 과일, 야생꿀 그리고 식용곤충 등을 간식으로 먹고, 커피나 맥주도 마신다. 담배는 주요 농작물만큼 남부 모두에게 인기있는 기호품이다.

구무즈족 사회에서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르거나 일상생활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대해 상당히 엄격하다. 실제로 각 촌락이나 가족단위로 이러한 구무즈족에게 벌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도둑질이나 거짓말, 그리고 아내를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구무즈족에게 있어 무역은 매우 중요한 삶의 수단이다. 때때로 주변 부족인 오로모족과 무역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들의 농작물을 오로모족의 커피, 의류, 면도칼 등 교환한다. 지역시장에 가서 교환무역을 위한 뉴스나 최신소식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서 자리가 마련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연설을 들을 수도 있으며 술을 마시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신앙

구무즈족의 30% 정도가 무슬림(이슬람교도)이며, 전통적으로 레바(Rebba)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며 숭배한다. 그들은 레바신을 비롯한 여러 지역영혼들에게 기도를 올리며, 촌락에 풍년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러한 의식이 자신들을 악한 영혼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가져다준다고

믿는다. 구무즈족에게서는 많은 미신적 요소가 발견되는데, 비나 번개 같은 자연현상부터, 동물, 곡식 심지어 자신들의 이빨까지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구무즈족 사회에는 금지된 음식물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우유를 마시면 대머리가 된다고 믿으며, 남자가 양배추를 먹으면 게으른 성격을 갖게 된다고 믿는다. 또한 여성이 포리지를 준비하는 동안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여자나 남편이 심각한 병에 걸린다고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대다수의 구무즈족은 기독교 메시지를 들을 만한 기회가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재 그들을 전도하는데 필요한 어떠한 기독교적 정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무즈족을 위한 선교단체가 아직 파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제가 품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컴퓨터

“헨더슨 예배당에서 훔쳤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에서 지난 21일 오후 이런 쪽지가 발견됐다. 쪽지는 목직 한 티셔츠 위에 붙어 있었다. 주디스 윌하이트 목사가 티셔츠를 펴니 2대의 노트북 컴퓨터가 있었다(사진). 그날 아침 잃어버렸던 것이다. 누군가 교회에서 노트북을 훔쳐 갔다가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는 매주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다. 헨더슨 예배당은 몇 곳의 예배처소 중 하나다. 윌하이트 목사가 이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 인맥사이트인 페이스북에 올리자, 1900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한 교인은 “내가 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 세상이 바뀐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댓글을 썼다. 이 교회는 ‘사랑은 할 수 있다’는 주제로 매주 연속 설교를 하고 있다. 21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회개와 용서에 관해 설교했다. 주일 아침 도난당한 노트북이 오후에 돌아온 것은 설교 때문인 것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다. 윌하이트 목사는 “노트북을 돌려준 이는 성령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라며 “성령을 따르면 축복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4월에도 사건이 발생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예배실로 돌진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에도 교회는 범인을 용서하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의 가족을 돌봐주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전했다.



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의 앞글자를 딴 LGBT 평등지수는 각 회사가 종업원 특히 LGBT들에 대해 어느 정도 권리를 존중해주는지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고 스위스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지수를 뉴욕시장에서 공개하면서 현재 미국에 근거지를 둔 201개 회사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앞으로 이 지수는 물론 관련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룬 나라들로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미국의 프라이빗 뱅킹에서 최소 25만 달러(약 2억6천여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만 공개되고 있으나 내년에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이다.



크레디트 스위스 미국 법인장인 더그 니에터스는 “이 지수를 개발하는 아이디어는 투자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나왔다”면서 “어느 회사가 LGBT에 우호적이라면 관련 종업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결국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미국 내 동성애 옹호단체인 휴먼라이츠캐ampaign의 회사 평등지수를 바탕으로 LGBT 평등지수 기준을 마련했다.

이집트인 정신 건강 위험수위

이집트가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를 겪은 2011년 이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받고 있다.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는 3년째 이어지는 유혈 사태의 지속과 치안 악화, 정치적 혼란, 이슬람과 기독교의 종파 갈등에 따른 이집트 청년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28일 분석했다.

이집트는 시민혁명 이후 치안이 크게 악화했고 소수 집단 기독교인을 겨냥한 무차별 테러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시위 참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자주 일어났다. 지난 8월 카이로 라바 알야디야 광장에서 벌어진 군경의 이슬람주의자 시위대 유혈 진압은 현장 주변에 있던 어린이와 청년들에게도 적지 않은 심리적 충격을 안겼다. 지난주에는 교회 결혼식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괴한들이 총기를 난사해 8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는 참사까지 벌어져 기독교인들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다.

이집트 정신과 전문의들은 2011년 혁명 이후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가 청년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 정신과 의사인 수아드 무사 카이로대 교수는 “이집트 정국이 혼란한 3년간 치안 악화와 관련해 상담하러 온 손님들이 더 늘었다”며 이들 가운데 다수인 6~14살은 신변 안전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상담 대상자들은 남치를 당하거나 강도, 도둑 피해를 보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무사 교수는 전했다. 특히 무사 교수는 불안감이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며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집트의 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 혁명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의 괴리감이 가져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엔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는 조사 대상국 156개국에서 가장 전체적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전반적 행복 지수에서는 138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분위기 속 위스콘신 반기

미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린 뒤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스콘신 주



에서는 정반대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위스콘신 주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며 실제적으로 결혼과 유사 혹은 동일한 다른 법적 지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는 헌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2009년 동성에 옹호자들은 동거인(Domestic Partnership) 등록을 허가받는데 성공했다. 동거인 등록은 시민결합(Civil Union)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의 동성커플 허가단계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가장 초기에 해당한다.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동거인 등록은 주 헌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그동안 “동거인 등록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첫 단계”라고 환호하던 동성에 옹호단체들은 “동거인 등록은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일단 결혼법은 각 주에 귀속된 것. 따라서 동성결혼을 거부하는 주들은 주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동성결혼을 거부할 수 있다. 최근 뉴저지 주는 결혼법이 아예 없어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A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 자격이 되는 공화당 소속의 J.B. 반 홀런 법무장관은 “이 소송에서 동거인 등록제를 옹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이 헌법을 개정한다면 그들의 명령을 따르겠다. 정책 입안자들은 말을 자주 바꿀지 몰라도 난 그렇지 않다”며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하급법원 동거인 등록제 보다는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서 대부분의 행정부 관료들이 결혼보호법이나 전통적 결혼법 변호를 거부한 것과는 정반대 현상인 셈이다. 동성에 옹호자들이 소송을 피하기 위해 “결혼과 동거인 등록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둘은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나이, 근친, 중혼 등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다.

ADF측은 “이 나라의 헌법은 그 역사와 전통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코 헌법적 권리가 될 수 없으며 차별금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카이퍼가 만난 시골 칼빈주의자들

카이퍼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나고 완전한 칼빈주의자로 돌아선 것은 시골 칼빈주의자들과 만남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회들은 신학을 전공한 박사를 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들은 학구적인 목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목회자를 찾고 있었다. 그러므로 젊은 학자인 카이퍼 목사가 갈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 카이퍼는 6개월을 더 기다린 후에 베이스트교회의 청빙을 받는다. 베이스트는 우트레흐트와 덴부쉬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시골로서 당시로는 마차나 농부의 손수레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었다.

카이퍼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간 힘들고 버거운 일이 아니었다. 카이퍼는 그 당시 상황을 그의 책 "확신컨대"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내가 이사한 지역에는 몇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한 보수성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수성은 인습적이었고 참된 교화를 하지 못했다. 영적 활기가 없었다. 거기에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없었으며 몇 년의 교인들의 삶이 묻어 나오지도 않았다. 그들은 나

에게서 받고 싶었지만 무엇인가를 돌려주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교인들 중에는 불만이 있는 집단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공론가들은 품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다. 그들은 화를 잘내며 거만하고 괴상하며 전임 목사들을 괴롭혔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매우 천민 출신이기 때문에 전임 목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이 순진한 사람들과 겨루기에 충분한 지식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말씀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정통적인 개혁신학 이론에 기초를 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때때로 나는 교실에서 다시 앉아서 유능한 스콜텐 교수가 하는 '개혁교회의 교리' 강의를 듣는 것 같았다. 내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들은 개혁교회의 진리를 지키고, 믿고, 그대로 구체적인

였다. 사실 발투스가 담임목사에게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은 아주 결례이지만 무언의 항의이고 메시지가였다. 발투스는 카이퍼 목사의 설교에 대한 반항으로 교회에 출석하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사적으로 대담하게 목사의 심기를 건드렸다.

1914년 3월30일 발투스가 죽자, 카이퍼가 주필로 있는 일간지 스탠다드 지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기사가 실렸다.

"그녀가 그 당시에는 아직 젊었지만 그녀의 결단은 요지부동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순교자들이 지켰던 신앙고백을 고수했다. 그녀는 순교를 결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굴복하고 타협하는 자들을 많이 보았다. 카이퍼 박사가 목사가 되었을 때도 그녀는 카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으로 자유주의에서 정통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카이퍼 박사는 그를 만나고 부터 새롭게 되었고 그가 해야 할 소명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카이퍼가 쓴 고백서인 "확신컨대"(Confidentie)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나는 어찌 할꼬! 나에게서는 보수적인 전통 신앙서적이 없다. 나는 그것들을 본적이 없으며 그것들은 내게 생소하다. 그것이 라이덴 신학생들의 실상이었다. 정통적인 신앙고백이 우리에게서 웃기는 풍자화로 보여졌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이 그런 무익한 저작물에 그들의 돈을 드린다는 것은 사치이며 금전낭비였다. 나는 칼빈(J. Calvin)과 라스코(A. Lasco)에 대해서 많은 것

외국에서 칼빈의 교리와 신앙이 이 순박한 노동자들의 가슴에서 삶에서 온전히 살아 있었다."

결국 카이퍼의 고백을 생각해보면, 평범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이 카이퍼에게 개혁주의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라이덴 신학자들이 했던 것보다 더 엄격하게 훈계한 셈이다. 그리고 카이퍼는 그들의 가르침을 허락했다. 그토록 거만했던 카이퍼는 베이스트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듣는 동안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 젊은 신학박사인 카이퍼는 베이스트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도착했지만 그는 그들 가운데서 작은 자가 되었으며, 카이퍼는 그들의 확고한 소신을 귀히 여기게 되었다.

카이퍼는 라이덴 대학에서 학문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그 아름다운 정통 개혁주의 신앙의 가르침은 농부들에게 배운 셈이다. 그래서 카이퍼는 다시 태어났다. 카이퍼는 16세기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회복하는 칼빈주의의 부흥가가 되었고 개혁자가 되었다. 그리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한 생애를 걸었을 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과 그의 영광과 주권을 위한 전사로 살았다. 카이퍼는 칼빈주의의 신학을 위해서 순박하고 지체 낮은 서민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애환과 눈물을 닦아주는 친서민 정책으로 수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젊은 날의 카이퍼를 옮겨 이해하는 것이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이해하는 지름길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시골 베이스트교회에서 확고한 개혁주의신앙 만나서민 애환과 눈물 닦아주는 수상되는 밑거름 마련

들 때문에 안정을 잃지 않고 그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괴로웠다. 가정 심방을 할 때에는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를 했다. 그것은 젊은 목사가 불손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 확실했다. 그들은 다른 성도들로부터 나의 정통 신앙이 여전히 성숙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들은 나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는 무심한 교회의 대표쯤으로 보았기에 그들은 내게 반발했다. ...대학 교육을 받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인물은 베이스트교회의 강력한 정통신앙 그룹의 대표 격인 피에터 발투스(Pietje Baltus 1830-1914)를 거명하지 않을 수 없다. 카이퍼가 그 교회를 시무하는 동안 그녀는 30대 중반의 아직 젊은 여성이었다. 카이퍼 목사가 발투스의 집에 심방했을 때 그녀는 카이퍼와 악수하기를 거절했다. 그 이유는 발투스의 판단으로는 카이퍼 목사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개혁주의 목사로서는 함양미달로 보였기 때문이

이퍼를 자기 목사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둘이 만나고 또 만나자 그것이 카이퍼 박사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카이퍼는 갑자기 이 여인 속에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둘의 만남이 믿음의 선조들의 영적인 유산에 대한 교육으로 발전되었다. 그 후 카이퍼는 냉담한 현대주의적 사교를 버렸다. 이제는 돌트총회(The Synod of Dordt)의 참 뜻을 깨닫게 되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요한 칼빈(John Calvin)의 사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 이처럼 하찮은 시골 여인이 카이퍼를

을 읽었지만 내가 진리를 읽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저 학문적으로 이해할 뿐이었다. 나는 칼빈과 라스코의 책들을 그냥 출판물로 의례적인 간행물로 읽고 연구했고 그들의 심오한 진리를 캐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시골 한 구석에 숨어있던 농부들이 나에게 칼빈이 온전한 라틴어로 말했던 내용을 그들의 방언으로 정확하게 말했다. 비록 신분이 낮은 이 노동자들은 칼빈의 이름을 들은 적이 거의 없지만 칼빈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칼빈이 죽고 나서 수세기 동안 더구나

가정사역 칼럼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지혜와 지식을 전해주려고 해도 자녀와의 관계가 나쁘다면 그것을 전해줄 수가 없다.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엔 방법들 중에 티타임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분주한 일상에서 자녀와 시간을 정하고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할애된 시간 말이다. 이를 위해 자녀와 함께 하는 데이트 시간, 혹은 티타임(Tea Time)을 가질 것을 권해 본다.

자녀와의 데이트(Date) 혹은 티타임을 시작해보자. 먼저 자녀와 데이트를 하거나 티타임을 가지려면 부모와 자녀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주 중에 가장 적합한 요일에, 일정시간(1시간 정도)을 정하여 시도해보는 것도 좋겠다. 데이트나 티타임 시간이 정해지면, 두 번째로 할 일이 데이트 장소나 예쁜 차트를 준비하는 일이다. 자녀와의 일대일 데이트나 티타임은 많은 어린이들이 좋아한다. 부모와 어린이들은 일대일 데이트나 티타임을 통해 함께 즐겨

운 놀이(영화나 연극 구경)나 게임 등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신의 얘기를 하는 동안, 어린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자존감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부모 입장에서 쉽지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심어주기 원한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상적인 한 주에 한 번 정도, 너무 바쁜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자녀와 일대일 데이트를 하

거나 하다못해 티타임이라도 가져보길 권한다.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자기와 함께 갖기로 한 시간 약속에 기대를 품게 되고 자신의 예쁜 차트를 가진 것만으로도 티타임을 기다리게 된다. 과연 그런 시간을 어떻게 계획하고 운용할 것인가? 데이트나 티타임의 시작에서 부모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의 두 가지 규칙만은 지키도록 한다.

■ 부모님이 지켜야할 데이트/티타임 규칙1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주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엄마나 아빠와 데이트를 할 텐데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아이와 상의하도록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라. 때론 함께 영화나 연극 음악회 등 가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지

만, 할 수 있는 대로 아이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라.

자녀와 함께 데이트를 하러가거나 차를 앞에 놓고 앉으면 부모님은 말을 아끼도록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자녀들이 먼저 자신의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이가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정한 시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가 이야기를 주도하거나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 아이가 말 한 마디 없이 끝나게 된다면 "아쉽지만 오늘 약속된 시간이 끝났네"라는 얘기와 함께 데이트와 티타임을 정리하라.

■ 부모님이 지켜야할 데이트/티타임 규칙2

데이트 하는 동안 아이들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의 결정을 따라주며 좋은 경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 아이들의 얘기에 대해 절대 톨를 달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말라. 아이가 어릴수록 아이가 얘기하는 것에 공감하고 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인가 지시하려고 하고 고쳐보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은 데이트 시간이나 티타임을 좋아하지 않게 된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지식이나 해법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아이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라. 특히 힘든 감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해 주라. 예로, "마음이 참 힘들었네." 혹은 "많이 슬펐겠다." "참 아팠지?" 등의 반영적 경청법을 사용해서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게 될 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친밀감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의 바람, 소원, 등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노력해보라. (16면으로 계속)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부흥성회

기간 2013년 **10월 17일(목) ~ 24일(목)**
11월 25일(월) ~ 30일(토)
12월 2일(월) ~ 12일(목)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주일은 기도성회가 없습니다.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문의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62. 창조론의 기초(13) - 빙하시대

빙하시대는 세상 과학자들에게 수수께끼다. 오죽했으면 빙하시대 전문가인 Daniel Pendick(1996)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빙하시대는 공상과학 이야기처럼 들린다"라고 절망적인 고백을 했을까?

빙하시대란 지구의 약 3분의1이나 되는 광대한 면적이 북반구는 700m 이상, 남반구는 1200m 이상의 눈으로 쌓였던 시대를 말한다. 이런 빙하시대가 있었던 사실은 남겨진 흔적 즉 빙하지형(U-곡곡, 호른, 모레인 등)을 통해서 추측한 것이다. 그러므로 엄청난 양의 눈이 내린 빙하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한 가지는 눈이 내릴만한 기온과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조건이다. 그러므로 빙하시대는 영하 수십 도의 극한의 기온이 필요 없고 단지 섭씨 0도 이하면 충분하다. 두 번째 조건은 수백m 두께의 눈으로 내릴 공기 중의 수증기 공급이다. 빙하시대는 분명히 있었으므로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빙하시대는 올 수 없었다.

빙하시대에는 지구가 썩을 일 없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증기를 공급해야 할 바닷물 온도가 너무 낮아져서 많은 눈이 내릴 수 없게 된다. 반대로 기온이 높으면 수증기 공급은 많아질 것이지만 눈은 내리지 않게 된다. 세상 과학자들은 추운 기온을 화산재 등으로 설명한다. 사실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 아래에서는 눈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바닷물 온도(평균 섭씨4도)로는 다량의 눈을 내리게 할 수 없다. 현재 공기 중에 떠 있는 수증기 양은 빙하시대에 필요한 눈을 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엄청난 눈이 내린 빙하시대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빙하시대는 "공상과학에서나 가능한" 이

야기라고 절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빙하시대 자체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빙하시대 후에 매머드, 검치호, 아메리카 매스터돈 등 대형 동물들과 새들이 무더기로 멸종된 수수께끼 같은 제 4기 멸종사건도 세상 과학자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빙하시대란 단어나 눈이 수백 미터 쌓였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다. 그러나 빙하시대가 사실이고 성경은 창조에서부터 기록이 되

와 달리 빙하시대나 용이 살았던 연대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얻어진 결론이다).

창조과학자들은 세상 과학자들이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다량의 수증기 공급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노아홍수 후기, 불어있던 대륙이 갈라지면서 지구 내부에서 엄청난 양의 용암이 솟아 나와 현재의 바다 바닥을 형성하였다.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인데 이렇게 넓은 바다의 바닥은 용암이 굳어서 된 현무암이다. 노아홍수 후기에 엄청난 양의 용암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분출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음에 틀림없다. 현재 바닷물 평균 온도가 섭씨 4도인데 그 당시에는 섭씨 30도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 따뜻한 바닷물이 노아홍수 직후 사막도 없고 시베리아에서 사막과 매머드가 살았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빙하시대에 필요한 수증기를 공급하였으며, 빙하시대 후(바닷물 온도가 현재와 같이 낮아져버림)에 대형동물들의 멸종이 줄을 이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

빙하시대에 수백 미터의 눈이 내린 지역은 극지방에 가까

수 이후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빙하시대의 정확한 시기나 기간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다.

창조과학자들은 빙하시대의 가능한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 한 가지는 노아홍수 이후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지구가 나뉘면서 관들이 움직이고 평형을 찾아가는 동안 지극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많은 화산들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홍수 직후에는 따뜻한 바닷물 영향으로 많은 증발이 있었어도 비가 되어 내렸을 것이다. 바닷물이 점점 식으면서 바다 영향을 덜 받는 대륙부터 눈으로 바뀌면서 화산의 영향이 있는 곳에 빙하시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까 하는 견해다. 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 화산들을 터뜨려 바닷물이 눈이 되어 대륙에 쌓이고, 해수면이 낮아져 대륙붕이 드러나고,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대륙까지 쉽게 흩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견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섭씨 0도 이하와 충분한 수증기 공급이 빙하시대 충분조건 바벨탑사건에 대한 하나님조치 추측... 홍수후 인간수명 급감



빙하시대의 열쇠
따뜻한 바닷물은 빙하시대 도래를 위한 핵심 사항인데 노아홍수 후의 결과였다. 또, 따뜻한 바닷물은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 할 수 있었던 조건이었고 빙하시대 이후 대규모 멸종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다.

위서가 아니라 주위에 대해 화산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지금은 동토인 시베리아에는 북극아에 가깝지만 빙하가 없었다. 시베리아에서는 빙하시대에도 아직까지 따뜻

있다. 그런데 노아홍수 이후 450세 정도로 유지되던 사람의 수명이 점점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250대로 떨어진 것이나, 방주에서 나올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빙하시대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빙하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복음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방주에서 나온 공룡들도 한 때 매머드와 함께 번성하다가 빙하시대 이후에 멸종되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의 타락사건, 환경이 깨어진 노아홍수 사건,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진 바벨탑 사건을 지나오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모두 잃어 버리고 말았다. 여기에 빙하시대를 지나야 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나쁜 소식들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아담'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어있기 때문에 빙하시대도 이 역사 중에 있었어야 한다. 성경에서 빙하시대를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눈과 얼음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는 욥기다. 눈, 눈 곳간, 얼음, 우박, 우박 창고, 추위 등과 더불어 욥과 친구들의 대화중에 생생하게 드러난 아담 이야기부터 노아홍수 이야기까지, 욥의 나이, 욥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가축들, 공룡으로 보이는 동물들이 욥 앞에 살고 있었던 점(40-41장), 이스라엘이나 율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욥이 빙하시대나 빙하시대 직후에 살았음을 알 수 있다(연대가 기록된 노아홍수

한 바닷물의 영향으로 사람과 매머드가 계속 살고 있었다. 사실 노아홍수 직후 전 지구는 한대나 열대가 없었던 시대였다. 한대와 열대 동식물들이 어디에서나 함께 발견되는데 이런 기이한 현상을 과학자들은 조화되지 않은 연합체(disharmonious association)라고 부른다.

빙하는 노아홍수 지형 위에 올려져 있으므로 빙하시대는 노아홍수 다음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또 아브라함부터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있지만 빙하시대 전후의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빙하시대는 노아홍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행복을 원하는 현대인의 심리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한다.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지금의 문명발달과 산업발달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고도의 문명과 산업의 발달을 이룬 현대인들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2년 7월에 발표한 '제 10회 대한민국 경제적 행복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민 대부분은 경제적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늘어나는 자살률과 우울증, 급증하는 이혼율과 고독 같은 현상 등이 그 증거이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표준국어대사전 2013)이다. 교육학 사전에서는 행복을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또는 심신의 양면에 걸쳐 욕구가 충족된 상태'로 정의한다. 행복은 사람의 심리적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심리적, 신체적인 욕구 모두 충족될 수 있을까?

마틴 셀리그만(Martin E.P. Seligman)은 "왜 모든 문화권에서 구매력이 늘어나고 전장에 의한 사망률도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가졌다. 그리고 이런 과학자들의 질문은 '행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게 되었고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심리학으로 발전시켰다.

긍정심리학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행복한지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행복과 관련이 있는 성격요인을 연구한 결과 외향성, 자존감, 개인적 통제감, 자기효능감, 낙관주의를 지닌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Diener, 1995; Myers, 1992).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의 베일런트 교수팀이 전도유명한 하버드 2학년 학생 268명의 일생을 72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결과 행복한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는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교육, 안정적인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버드 졸업생들 중에서 50대에 이르러 이들 7가지 중 5-6가지를 갖춘 사람들은 80세에도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으며 50세에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들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베일런트 교수의 연구 외에도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웃음을 잃지 않은 사람, 일과 여가, 휴식의 조화를 이룬 사람, 사랑하는 관계를 가진 사람, 건강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처럼 행복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논리적으로 행복의 요소를 밝혀내는 것은 참 매력적인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베일런트 교수는 "삶은 극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과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숫자로 말하기엔 너무나 아름답다"고 고백하면서 삶의 요묘함을 강조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에 어렵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질되는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한 본질과 행복에 대한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의 마음의 상태를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으로 유지하고 날마다 좋은 습관을 통해 삶속에 행복의 요소들을 자발적으로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개인의 삶을 바꾸기 전에는 진정한 행복은 신기루처럼 멀어져 간다. 기쁨이란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다. 우리의 행복은 상황이나 환경적인 형편에 달려 있지 않고 삶의 위기와 문제 속에서 기쁨을 유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현편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 (2) 신약 주해 - 레위기 21:1-9
-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 (4) 설교 본문 - ① 신약: 고린도전서 15:1-10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실기교사를 치를 것
-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6) 명함판 사진 2장
-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속소를 예약할 것
-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목회서신

현상인가 진리인가



여승훈 목사 (휴스턴 사랑의교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신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당신의 이성인가? 당신의 체험인가? 만약 당신이 당신의 신앙의 기준을 당신의 이성이나 체험에 둔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참된 진리의 길이 아닌'을 걷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유사 진리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유사'라고

하니까 진리에 근접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것도 괜찮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진리는 흑과 백이 분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7:21-23).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누구인가? 먼저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그

리고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많이 행사했다.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는가? 대단한 상을 주어야 하지 않는가?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상사적인 생각이다. 주여 주여 부르며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했던 본문속의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판단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판단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어떤가?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과 체험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 아닌가? 당신이 주목하여야 할 말씀은 '불법'이라고 지칭한 부분이다. 왜 불법이 되었는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 받았던 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였던 말을 보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

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내용인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만한 그 무엇을 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큰 실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였는가에 초점하였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리의 길을 왜곡하는 첫번째 지점은 자신들이 행위를 초점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진리는 그 출발이 반드시 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여야 한다. 기독교 진리는 당신이 무엇을 느꼈는가에 주목하지 않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대한 Facts(사실들)에 주목한다. 매년 수만명씩 교인이 줄어가는 한국 교회의 실정과 20년 전보다 한국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가 형편없이 추락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모두 함께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결국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마치 기독교 진리인양 착각하고 현상을 쫓

아갔던 지난날의 결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비숫한(조금은 세련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반복적인 실수를 자행해야 하겠는가? 제발 그러지 말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진짜 능력은 결코 당신의 어떠한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 자신의 어떠한을 과감히 내동댕이쳐 버리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전이인과 전체 사역을 송두리째 던져 놓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짝 잡고 진리의 흥미를 내는 걸밋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절대적으로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야 당신의 신앙과 당신의 사역과 주님의 몸인 교회에 비로소 소망을 보게 될 것이다.

“'2,3,4부흥운동' 160교회 적극참여" 기독교대한성결교 총회장 조일래 목사 기자간담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조일래 목사)는 26일 오후 4시 JJ그랜드호텔에서 총회장 조일래 목사가 함께한 가운데 LA기독인론사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조일래 총회장은 자신의 목회양력에 대해 언급하고 "지난 5월 총회장이 된 후 교단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운동인 2.3.4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성 총회장 조일래목사가 주최한 LA기독인론사 기자 초청간담회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조 총회장은 "2.3.4 부흥운동은 성결교단 산하 미자립교회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며 "현재 한국의 성결교회 절반정도가 미자립교회 혹은 소형교회다. 이들 교회 교인들은 담임목회자를 비롯한 교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교회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교회를 다닐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동안 교단에서 미자립교회 지원을 너무 목회자의 생활보조에만 초점을 맞춰왔다"고 지적했다.

목회자를 초청했다. 그중 203명의 목회자가 모여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2.3.4운동에 대해 설명했더니 모두 동참하기로 했다"고 언급하며 "2.3.4 부흥운동은 미자립교회가 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며, 이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한달 동안 다섯 가지 준수사항 중 항목 하나 당 10점씩 50점을 부여한다. 전도를 할 때 한달에 다섯 명을 전도해야 하는데 새신자 등록 후 3주까지 출석을 해야 전도가 된 것으로 인정한다. 전도는 한명당 20점씩 부여하며 만점은 100점이다. 점수당 선교비를 지원하는데 100점을 받게 되면 100만원, 전도의 열매가 없을 경우 그저 다섯 가지 사항만 충실히 지켰다면 50점에 해당하는 50만원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제비뽑기로 1번부터 203번까지 정했다. 이중 100번까지의 교회는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보고 마감일 이전에 한다. 그러나 번호가 뒤로 갈수록 보고가 늦어진다. 아마도 뒤 번호들은 후원받을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과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것 등으로 소극적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철 목사(남가주성결교회교역자회 회장)는 "2.3.4부흥운동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운동이라 생각한다. 한국에서 이 운동이 시작됐지만 이민교회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부흥운동이 미주의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해 미주성결교단에서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총회장은 "2.3.4운동은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덕목이며 그것은 △교회와 자립할 때까지 교단 및 자신의 목회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정치를 비롯해 목회 이외에 소모되는 것들을 지양하고 오직 자신의 목회에 전념한다 △월요일이나 법정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 없이 사역에 전념한다 △매일 두 시간 기도한다 △매일 3시간 성경 본다 △매일 4시간 전도 한다 로 이중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해당되는 2시간 기도, 3시간 성경보기, 4시간 전도하기가 바로 '2.3.4부흥운동'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현제 2.3.4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회는 160교회다. 조 총회장은 "선교비 지원은 교단 재정상 한번에 시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받는 교회는

한편 조일래 목사는 25일 사우스베이선교교회, 26일 오렌지중앙교회, 그리고 27일 유니온교회에서 열린 미주성결교회 주최 2013 홀리할렐루야 대회에 강사로 나서 말씀을 선포했다. (박준호 기자)

또 조 총회장은 "성결교단에서는 2.3.4 부흥운동을 위해 미자립교회



2013자마 컨퍼런스를 위한 기자간담회가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LA를 천사의 도시로 회복!”

2013 자마 컨퍼런스 앞두고 기자간담회

2013 자마 컨퍼런스를 한달여 앞두고 한참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마대표 김준근(장로)은 28일 정오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1월 8일(금)부터 10일(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리는 2013 자마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김준근 대표

를 비롯, 강순영 목사 등 스텝진들과 이번 대회에 특별 초대된 가수 소향이가 참여해 자마컨퍼런스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혔다. 김준근 대표는 "7년 만에 LA지역에서 자마컨퍼런스를 열게 됐다"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이곳 LA지역은 죄가 만연한 곳이 됐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LA가 천사의 도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현재 미국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위기 속에 처해있다. 이번 컨퍼런스가 21세기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불소시게 역할을 하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하루 전 7일 오후에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갖게 된다.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 공격적으로 맞서는 전략이다. 이 컨퍼런스에서 기도의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나아가는 시간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로 시작되는 2013자마컨퍼런스는 8일과 9일 영여권대회, 한어권 1세대회, 한어권 청년대회, 어린이대회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또한 토요일 오후는 각 그룹별로 다양한 전문훈련과 선택세미나들이 열린다. 또한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4시부터 7시까지의 전세대가 자리를 같이하는 헌신과 결단의 시간을 갖게 된다.

▲문의: (323)933-4055/www.jamanewawakening.com (박준호 기자)



UCLA한국학연구소 주최 한국기독교 컨퍼런스에서 옥성득 교수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다

위기의 한국기독교 대안 모색

UCLA한국학연구소 주최 한국기독교 컨퍼런스

UCLA 한국학연구소(소장 잔 던컨 박사)가 주최한 한국기독교 컨퍼런스가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4시30분까지 본교 벤틀홀에서 열렸다. 'Time of Crisis and Time for Renewal: Korean Christianity, 1945-2015'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본교 석좌교수 옥성득 박사

의 환영사로 시작 △세션I: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이슈 △세션II: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이슈 △세션III: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옥성득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는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 한국적 상황에서 기



제33회 OC 교회연합 성가합창제에서 마지막곡을 선사하고 있는 연합합창팀(지휘 송규식 목사)

제33회 오렌지카운티 교회연합 성가합창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주관 10개 팀 참가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 이사장 윤우경 집사)가 주관한 제33회 오렌지카운티 교회연합 성가합창제가 지난 20일 저녁 6시30분 일바인 베델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500여명이 함께한 본 성가제는 사회자 없이 부드러운 진행으로 수준 높은 연주회였다는 평을 남겼다. 본 성가제는 회장 박우진 집사의

인사말이 있는 후 베델한인교회 손인식 목사와 김한오 목사의 환영사, OC기독교교회 회장 민경영 목사의 축사, 부회장 이호우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됐다. 이날 출연한 교회는 나침반교회 찬양대(지휘 류봉수 목사), 포이에마여성합창단(지휘 광명규), 선한목자장로교회 찬양대(지휘 김원재), 미주여성교향(지휘 오성애), 소노로



LA여성 선교합창단 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원내는 단장 최정직사모

“찬양으로 한마음...선교사역 동참”

LA여성 선교합창단 정기연주회 성료

LA여성선교합창단(단장 최정직) 제5회 정기연주회가 20일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새 노래로 찬양', '사랑의 열매' 등 성가로 막을 올린 이날 연주회는 성가 이외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고향의 노래'를 비롯한 한국가곡과 우리들의 귀여운 호프만의 뱃노래를 들려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이날 특별 출연한 소프라노 조현주씨는 교회를 가득 메운 관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사해

목교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자 마련됐으며 여러 곳에서 다양한 전공자들과 학자들이 모여 깊이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UCLA 한국학연구소는 해마다 권위 있는 학자들을 초청해 깊이 있는 학문적 토론을 통해 한국기독교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김영일 박사(베일로드대학교), 제임스 그레이슨 박사(셰필드대학교), 김윤승 박사(한신대학교), 이학준 박사(풀러신학교), 김할라 박사(네브라스카주립대학교), 김한미(UCLA박사과정), 이미숙(동경대학교박사과정), 오상미(UCLA박사과정) 등이 나서 강의했으며 옥성득 교수가 토론을 인도했다.

한편 24일에는 한국기독교세미나를 본교 영라이브러리에서 제임스 그레이슨 박사를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The Empire of Mt. Sion 시온산 제국: A Korean Millenarian Group Born in a Time of Crisis'라는 주제로 열었다. (박준호 기자)

스남성중창단(지휘 이종현), 함께하는교회 찬양대(지휘 유기훈 전도사), 인랜드교회찬양대(지휘 이재경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4부찬양대와 오케스트라(지휘 이영진 목사), 은혜한인교회 은혜성가대와 그레이스오케스트라(지휘 윤태중 박사), 베델한인교회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지휘 김종만 장로) 등 10개 찬양팀이 함께 했으며 마지막 장식은 연합합창과 연합오케스트라(지휘 송규식 목사) 600여 단원이 함께 멘델의 할렐루야를 찬양함으로써 성가합창제의 절정을 이루었다.

특히 이번 성가합창제에 참가한 교회 지휘자들에게는 삼성 갤럭시 태블릿3을, 반주자들에게는 화장품을 선물했으며 청중동원상으로 김스피아노가 제공하는 가와이 디지털 피아노까지 있어 흥미롭고 풍성함을 더했다. 청중동원상 1등 베델한인교회, 2등 은혜한인교회, 3등 남가주사랑의교회가 차지했으며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자문 주도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OC기독교전도협의회)

깊은 감동을 선사했으며 배재코람은 '사랑의 테마', '가시나무새', '힘찬 십자가 능력 있네'등을 감명 깊게 들려주었다.

이날 연주회는 LA여성선교합창단과 배재합창단의 혼성합창곡으로 마무리했으며 김여진 목사(성경통신학원 원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본 합창단은 선교에 동참하고자 2002년 발족돼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매 연주회마다 선교기금을 모아 한국실로암 안과병원을 통해 '한국 어린이시각장애자 각막이식수술비', '러시아 산티페르스버그 고령인을 위한 선교센터 건축기금', '미주복음방송국'등을 도왔으며 금년에는 정신치료사역(Healing ministry for mental problem) 후원을 위한 연주회로 개최됐다. (이성자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뉴저지교협 ALL Retreat 2013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가 주최하는 ALL Retreat 2013(EM Pastor's Retreat)이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열린다. "거룩한 짐"(A Glorious Burden, 딤후1:6-9)이라는 주제로 강사는 다니엘리 목사(Compass Fellowship Church). 참가대상은 1차 Church Planter, Seminary Student 2차 대상은 EM Pastor & Lay Minister.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 마감은 11월 17일.

▲문의: (201)647-7766, njkchurches@hotmail.com

반주자 초빙

뉴욕 에벤에셀선교회(공동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가 반주자를 초빙한다. 신실한 크리스천이며, 피아노를 전공한 자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이메일 josephchoi0408@yahoo.com

▲문의: (718)570-5858

담임목사 청빙

캐나다 에드몬튼 벨렌 한인침례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M. Div)과 그 이상 학위소유자로 북미주지역 담임 목회경력 3년 이상(부목사 포함), 이민목회사명과 2세 교육에 비전이 있고 미주북침례교단 가입에 결격사항이 없으며 합법적 캐나다 체류가 가능해야 한다. 이력서,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자기소개서, 목회철학 및 비전서, 최근 3개월 설교동영상(한영 2편) 추천서(목회자 2명과 연락처 기재), 최근사역 교회주보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11월 30일. 이메일: terryjin@telus.net

▲문의: (780)430-9729, 619-8181

뉴욕교협 임원진 발표

총무 장경혜 목사, 서기 송일권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제 40회기를 이끌어갈 임원진이 발표됐다.

뉴욕교협은 지난 22일 각 언론사에 이메일을 발송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부회장 이재덕 목사(뉴욕 사랑의교회) △평신도부회장 이주익 장로(뉴욕에일장로교회) △총무 장경혜 목사(뉴욕소망장로교회) △서기 송일권 목사(큰은혜교회) △부서기 이철희 목사(농아인교회) △회계 이수원 장로(뉴욕순복음연합교회)

교회) △부회계 전희수 목사(기쁨과영광교회) △협동총무(수석) 김홍석 목사(뉴욕기쁨교회).

뉴욕교협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무로 임명된 장경혜 목사는 지난 회기에 서기를 맡은 바 있다. 이번 장경혜 총무의 선임으로 여성 목회자들에게는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뉴욕교협 내 여성 목사회원은 총 14명이 가입돼 있다.

뉴욕교협은 오는 11월 14일 신규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

마감 8일... 목사안수 10년·인격 품행 등 자격명시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가 오는 18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정부회장 후보등록에 들어갔다. 뉴욕목사회 제 42회기 선관위원회(위원장 최창섭 목사)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회장 및 부회장 임후보 자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① 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② 뉴욕지구 내에서 담임목사 경력 5년 이상 ③ 목사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역임 ④ 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법정징고형 이상 혹은 재판계류 중).

구비서류는 ① 후보등록원서 ②

소속교단 추천서 또는 증명회장 추천서(독립교회는 3인 이상) ③ 회원 추천서(5인 이상, 독립교회는 생략) ④ 증명회장 추천서(2명 이상, 독립교회는 생략) ⑤ 이력서 ⑥ 입후보 접수마감은 8일(금) 오후 5시.

한편 정기총회는 18일(월) 오전 10시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3년간 총회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장학금전달 및 사랑의쌀 나눠

총회 앞서 신입회원 가입승인 결정

뉴욕목사회(회장 최예식 목사)가 이번 회기 마지막 사업으로 회원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실행했다. 최예식 목사는 "많지 않은 액수지만 이 장학금을 통해 목회자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크리스천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자기관리를 잘하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 때문에 보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저녁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 마지막 임실행위 겸 행사는 총무 김기호 목사 사회로 기도 황동의 목사(부회장), 성경봉독 전희수 목사(회계), 양승호 목사의 설교("오직 예수", 살전4:9-12)후, 최예식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장학금 수여와 사랑의 쌀 나누기가 이어졌다. 이광희 목



뉴욕목사회 장학금 전달식 및 사랑의쌀 나누기를 마치고 임원들과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사의 축도 후에는 신입회원 가입 승인심사를 위한 임실행위가 이어졌다.

장학금은 목사회원 자녀 20명에게 각 5백달러씩 총 1만 달러의 장

학금이 전달됐다. 이 중 신학생이 7명이었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재표(뉴욕메신저교회), 박진수(풍성한교회), 이준용(새연약교회), 이계민(뉴욕행복한교회), 오세준(뉴욕은총장로교회), 김성준(주양장로교회), 권오창(뉴욕하나교회), 한유정(뉴욕성원장로교회), 장윤선(뉴욕소망장로교회), 박정욱(뉴욕영광장로교회), 김고은(뉴욕미라비전교회), 송재명(큰은혜교회), 서원(CT에버그린교회), 임성은(좋은씨앗교회), 정하나(퀀즈동부교회), 유한영(

최요셉(뉴욕참사랑교회, 독립), 안인섭(추수교회, 없음), 김경숙(뉴욕즐거우교회, ECA), 김경자(새문장로교회, 국제총회), 김화자(뉴욕순복음연합교회, ECA), 서문도(에버그린한인교회, 예정합동미주 뉴욕노회), 김신영(좋은목사교회, 국제총회), 정상철(뉴욕예본교회, PCA), 김경순(제일사랑교회, 국제총회), 임용수(좋은씨앗교회, 하나님의성회), 권영국(뉴욕하나교회, KAPC), 나영애(다민족교회, RCA), 김경열(기관목사, KAPC), 이종선(주님의식탁선교회, 미주연합합동), 지도자(기쁨의교회, 독립).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네 손을 펴라...주는 자가 복되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후원자의 밤’ 24일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올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원자의 밤’이 오는 24일(주)로 한 주 연기됐다.

기아대책은 지난 24일 월례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인 24일 오후 5시로 결정했다. 장소는 뉴욕선한목사회교회(담임 황영진 목사)로 동일하다. 이날 박진하 회장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자”며 각 부 상황보고를 들었다.

사무총장 유상열 목사는 “이번 후원자의 밤이 소박하지만 진실성 있게 준비해 후원자들에게 후원 상황을 알리고 감동을 줌으로 아동후원을 배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원자의 밤에서는 아동선교센터 건축에 1만 달러를 후원한 콜롬비아와 역시 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페루 두 곳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아울러 아동후원 소개가 있게 된다. 또 브로셔와 ‘오병이’기도 발행된다.

기독교장 임병남 목사는 이번 오병이에 후원자들의 간증문고 제출을 담임목사들이 독려해주시기를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설교 황영진 목사, 축도 박진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황영진 목사는 신명기 15장 7-11절을 본문으로 “네 뚝뚝 손을 펴라” 제목의 말씀에서 “오늘날 인간 황폐화의 악은 무관심이다. 현대는 이웃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 잘 살려는 이기주의 시대”라며 “교회내 형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펼쳐 도와주고 했다. 열린 마음, 사람의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기아대책에서 하는 VOC는 가난한 마을에 들어가 떡과 복음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마을을 돕게 하는 것이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 개인 모두 베푸는 삶을 살자”고 강조했다.

한편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www.eafh.org)는 이메일(breadgospel@gmail.com)을 새로

(유원정 기자)



제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에서 김경옥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청교도신앙으로 가정과 교회 회복하자”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 성료

목회자를 위한 제 3회 청교도 가정사역 세미나가 지난 19일 퀸즈카운티 농장박물관내 농가 “아드리안스 하우스”에서 열렸다.

청교도가정사역원(원장 김경옥 전도사)이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초기 청교도 농경생활과 경건생활을 위한 순회설교와 현대 청교도 경건생활”에 대해 김필식 목사(영림교회 담임)가, “청교도 초기 경제생활과 현대 청교도 복음주의 생활”에 대해 이창중 목사(뉴욕동서교회 담임)가, “청교도 초기 농가의 가정생활과 오늘의 적용”에 대해 김경옥 전도사(수곡 미술선교회 회장, 부평현대교회 가정사역부담)가 각각 강의했다.

김필식 목사는 중생체험을 강조한 순회설교자들의 헌신적인 삶과

설교, 현대 종말교회의 갱신은 성경적인 경건의 삶을 통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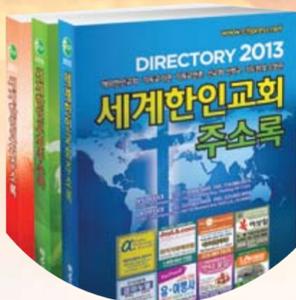
김경옥 전도사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하나님은 물론 부모를 몰라보고 자신만 아는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이때, 청교도와 같은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의 캐치프레이즈대로 자유, 신앙, 개혁을 실천했던 용기와 신앙을 배워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제 4회 세미나는 내년 5월말 웨체스터 테리타운 내에 있는 Old Dutch Church of Sleep Hollow에서 “청교도 예배를 위한 청교도 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예정이다.

(기사제공: 청교도가정사역원)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4년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마감 임박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4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4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둘출(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컬러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컬러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15.5cm x 5.8cm	\$350.00
	7.7cm x 11.7cm	
	15.5 x 2.8cm	\$250.00
전면 1/8	7.7cm x 5.8cm	
	7.7cm x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전승인)	3.7cm x 7.5cm	\$200.00

1) 교회(기관)이름	한글 :
2) 교회(기관)주소	영문 :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5) 서탁주소	영문 :
6) 서탁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8) Web Add.	
9) 소속교단(정확하게)	

다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목회자 무료건강검진 및 건강세미나 유니온종합병원-CHM한인지원국 공동주최

유니온종합병원과 크리스천헬스케어(CHM) 한인지원국이 공동주최하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풀러신학교 한인M.Div동문회가 후원하는 2013년 목회자 무료건강검진 및 건강세미나가 오는 11월 12일(화) 오전9시부터 정오까지 유니온종합병원(1555 W. Olympic Blvd, LA)에서 열린다.

무료건강검진에서는 근전도 검사, 신체균형 검사가 있고 피검사를 실비로 할 수 있으며, 건강세미나 주 내용은 △현대인의 질환과 질병의 원인 △신체의 이해 △현대병에 대한 대처와 관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설명회는 크리스천헬스케어 한인지원국에서 주

관 하에 열리게 된다.

또한 행사 당일 경품추첨을 통해 300-500달러 상당의 피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이 주어지며 유니온병원, 크리스천헬스케어한인지원국, 풀러신학교 동문회의 재정후원으로 50달러 상당의 피검사를 남가주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40명에게 무료로 펼치게 된다. 이밖에 세라노종합안과병원의 후원으로 10명의 목회자에게 무료 안과 검안서비스가 진행된다.

유니온종합병원 제임스노 박사는 "목회자들이 바쁘게 사역하다보니 몸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민교회 목

회자들은 피로를 많이 느끼는 거 같아 더욱 건강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교회에 비해 한인교회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고 말하며 "목회자들이 영적 리더들이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사역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목회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CHM 한인지원국 스티브정 디렉터는 "건강보험의 대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CHM

이 주정부 승인으로 카버드캘리포니아와 협력해 교회를 비롯 교계단체와 크리스천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보험을 들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나정 CHM사무국장은 "목회자들이 건강해야 성도 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며 "많이 참석하셔서 건강을 챙기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외는 남가주교협 총무 양경선 목사(213)255-1725, 풀러한인M.Div동문회 회장 박세현 목사 (323)404-3147, 유니온종합병원 (310)749-9248, CHM한인지원국 디렉터 스티브정 (213)842-3906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진유철 목사) 제44회 정기회가 11월 4일(월) 오전 10시 30분 풍성한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13)381-9490
- 시각장애인 장학금 마련 찬양의 밤**
시각장애인 장학금마련을 위한 찬양의 밤이 남가주살롬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 11월 10일(주) 오후 4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11월 15일(금) 오후 7시30분에 각각 개최된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주제 아래 개최되는 찬양의 밤에는 정화영, 김현정 시인이 출연하며 소울 가야금합주단, 글로리아 찬양대를 비롯한 여러 찬양단들이 찬양을 선사한다.
▲문의: (213)480-8560/(213)392-1030
- 라크마합창단 자선음악회**
라크마합창단(단장 윤임선 교수)은 감사절을 맞아 11월 10일(주) 오후 5시 한길교회에서 장애우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 선교사)를 위한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의: (213)245-4870
- 제13회 창작성가연주회**
제13회 창작성가연주회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가 주관하고 해외한인기독교문인협회와 미주시인협회 그리고 미주한인장악회 후원으로 11월 10일(주일) 오후 7시 나성서부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회장 조성환 목사 (714)403-8952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소향과 함께하는 밀알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밀알의 밤에 출연한 소향자매를 비롯한 전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함께 찬양하는 모습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소향과 함께하는 밀알의 밤' 대성황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소향과 함께하는 밀알의 밤이 25일부터 27일까지 성황리에 개최됐다. 25일 저녁 7시30분 ANC은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에서 열린 첫날 행사는 가수 소향을 보기위해 몰려든 관객들로 인해 분당 로비까지 좌석을 설치해야했으며, 행사 후에 마련된 소향자매의 사인회에는 소향자매의 CD를 구입하고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팬사인회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또한 밤 10시가 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한사람 한사람을 맞이하며 함께 사진도 찍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는 문화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ANC 은누리교회 찬양팀(인도이천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첫날 행사는 김태형 본 교회 차세대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밀알수여찬양단의 수여찬양이 있었다. 이어 소향이 무대에 올라 'Some Day', '꽃밭에서', '인연', '오직 하나님', 'You Raise me up', '하

늘을 달리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을 불러 분당을 가득메운 관객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전했다.

지난 2008년 밀알의 밤에 이어 5년 만에 참가한 소향자매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에 출연해 가수로서의 영역을 넓히게 됐지만 예수그리스도를 마음껏 표현할 수 없음을 답답함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가수에 출연하면서 한국 한국을 대하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하고 갖고 싶은 것이 소망과 꿈을 알게 됐다. 소망과 꿈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언급하며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기위한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류재덕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밀알의 밤은 둘째 날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셋째 날 메델란교회(담임 손인식 목사)에서 각각 열렸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행복한 부모교실이 매주 수요일 상담소 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열린 첫날 강의모습

"자녀와 청소년기를 잘 보내라" 한인가정상담소 주최 '행복한 부모교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가 주최한 '행복한 부모교실'이 23일부터 4주간의 과정으로 개최됐다.

행복한 부모 교실은 LA정신건강국이 제공하는 정신건강 예방과 초기치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녀의 행동발달에 있어 부모가 인지해야 할 중요한 정보 등을 함께 나누고 고민하며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오전 10시30분 로렌 권 클리닉 카운슬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린 시간은 20대 초반 결혼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대학진학을 앞둔 어머니,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 등 다양한 연령대의 부모 및 조모가 참여해 각자 자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누었다.

로렌 권 카운슬러는 "아이들 키우는 모든 부모가 겪는 일중에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잘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교육은 관계이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대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등 부딪힘이 생기게 될 때가 있다. 이런 현상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동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에게 쌓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지적하며 "자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다. 자녀교육은 마라톤과 같다. 길게 보고 작은 것 하나부터 변화를 주면 아이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된다"고 말했다.

권 카운슬러는 "미국의 문화는 한국과 다르다. 보통 자녀를 훈계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자녀교육상 긍정적 요소가 많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미성년자 자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존재라 여긴다. 그래서 부모가 회초리를 드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회초리는 하나의 무기로 인식한다. 따라서 회초리 등으로 체벌을 가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취급하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권 카운슬러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정서적인 부분은 받아주며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만줘도 대화는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점들은 수정을 해줘야 한다. 행동을 수정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수정해야 한다. 청소년기 때 관계를 잘 쌓아두면 부모와 자녀간 갈등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연장자 사역을 위한 후원금 모금을 위한 제4차 소망나눔가게가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파킹랏에서 열렸다

연장자사역위한 후원금 모금 제4차 소망나눔가게 921불 후원금 마련

제4차 소망나눔가게, SHARING HOPE GARAGE SALE이 라팔마연합감리교회 주차장에서 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2시까지 열렸다.

이번 소망가게는 봉사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활동으로 옷, 가방, 악세사리, 가구 등 다양한 품목들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약 300명이 방문, 921달러의 판매 후원금을 마련하게 됐다. 지나가는 길에 사인을 보고 물품을 구입한 미국인 카슨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 가라지 세일을 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일이다. 연장자를 위한 일들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며 물품을 구입했고 멕시코인 마타는 "페니세이버를 통해 가라지 세일 소식을 확인했고,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다닌다"

고 말했다. 이번 가라지 세일에는 김병희 홍보대사, 이병영 홍보대사를 비롯해 여러 봉사자들이 방문해 도왔으며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하고 방문한 수지강은 현장에서 의자 및 옷가지를 담을 수 있는 쇼핑백을 후원했다.

소망회원 및 우물후원자인 데보라리는 봉사자를 위해 따끈한 떡을 준비했고, 미셀김은 김밥과 어묵국을 준비해 소망 가족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번 가라지 세일은 서창석 UC 어바인 해부학 교수, 조앤강(전 강석희여바인시장 부인), UEC, Hi Hat Cleaners, Marty's Village Cleaners를 비롯해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물품을 후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나노 기술의 놀라운 칼슘흡수

BONSTRONG

인제대학교 나노 공학부 공동 기술개발
Bonstrong 이 약속드리는 골다공증 없는 세상

INHIS Inc
POWERBOLIC USA
laboratores Inc
Made in U S A

동부: 737-570-3611
서부: 310-903-1792

건물 렌트

뉴저지 린지필드파크 한인타운에 있는
건물을 렌트나 매매를 합니다
- 교회도 가능합니다 -

주차장: 100대
사이즈: 11,000 SQ
토 지: 2 에이커
렌트, 매매 옵션

연락처: 646)286-9336 (Rich)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아리조나 산속에 있는 기도원 판매

20에이커 안에
작은 2층집 1채
소예배실 1개
개인 기도실 4개
큰 라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바랍니다

(623)374-0691
(623)326-5532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멀티슈
판매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 (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WCC 반대운동연대, 부산서 집회

“WCC는 역사적 성경적 기독교 부인하는 종교집단”

부산 벡스코(BEXCO,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30일 개최된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10차 총회를 앞두고 29일 벡스코 앞에서 WCC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목회자 성도들 약20여명 명이 모여 벡스코앞과 길 건너 홈플러스 앞까지 가득 채운 가운데 집회가 진행됐다. WCC는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40개국에서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규모 면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연합기구로 꼽히고 있다. 이번 개최되는 WCC 총회에 참여한 한국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이 정회원

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또한 NCCK 소속 교단인 한국기독교회와 기독교한국루터회, 한국정교회 등도 이번 부산총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로마 가톨릭도 참관인(Observ-er) 자격으로 참석한다. 특히 제10차 총회를 개최하는 WCC의 목적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이지만 결국 WCC 총회를 통해 한국교회는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 WCC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연대에서는 “금번 제10차 WCC총회를 개최하는 한국목회자들은 과거 신사참배에 참여한 이단 중에 이단으로 한국교회의 공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교회 역사 속에 그들이 후손에게 기록 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CC 반대 집회는 이날 오후 1시

부터 4시30분까지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 기도회, 2부 규탄대회, 3부 현수막 대회가 이어졌다. 집회가 끝난 뒤에도 WCC 총회 진행에 항의하는 이들이 잇따랐다. 반대운동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WCC는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기독교를 부인하는 종교집단”이라며 “WCC는 동성애를 허용하며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WCC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문헌서나 역사서와 같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WCC는 예수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으며 하나님에게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는 비성경적 다원주

의를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운동연대는 특히 “WCC는 용공단체”라며 “아프리카와 남미의 공산계릴라에게 성도들이 현금한 돈으로 무기를 지원하고, 초대 아주 회장이 차오 목사가 1949년 중국에 마오쩌둥 공산정권이 수립된 후 고급관리로 임명돼 중국에서 활동하던 모든 선교사를 추방한 장본인인 것, WCC의 초대 미주 회장인 옥스 남 목사가 미 의회 청문회에서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힌 자인 것이 근거”라고 주장했다. 반대운동연대는 이날 집회에 부산은 물론, 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 4만명 이상(주최측 추산) 집결했다고 밝혔다. 반대운동연대 준비위원장 송준길 목사는 “참가 인원을 떠나 그동안 WCC 반대 보여준 의지와 열기 만으로도 한국교회가 WCC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 안티, 대응 어떻게...

의심받거든 화내지 말고 대답하라

[미션라이프]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의 탁월한 저자 중 한 명인 마크 놀 노트르담대 교수는 1994년 기념비적 저서 한 권을 출간했다.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이란 책으로 미국 복음주의에는 지성적 신앙 대신 감정적 믿음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문화와 제도, 신학적인 면에서 분석했다. 놀 교수는 반지성주의가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케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데도 미국 사회는 기독교를 깊이 없는 감정적 종교로 치부한다는 것이다.

안티 기독교가 던지는 희망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전문가들은 놀 교수의 논지는 한국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강영안 서강대 교수는 놀 교수의 책 추천사에서 “한국교회는 신앙과 관련된 일에는 열심이지만 신앙에 관한 일을 깊고 넓게 생각하고 제대로 알아가는 일에는 열심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했지만 신자들의 삶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과도 연결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0년 말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가 절반에 가까웠다. 울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발표한 ‘한국인 종교 인식조사’에서도 목회자 31%가 신앙의 실천 부족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히 못한 삶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른바 ‘안티 기독교’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이 부정적 의견을 확산시키는 밑거름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기독교 비판의 상당수가 행위 에 맞춰져 있지, 교리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할 희망은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임성빈 장신대 교수는 “안티 기독교의 움직임은 거꾸로 생각하면 여전히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만약 무관심하다면 비판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판을 변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변증(辯證)이란 자신에게 가해진 혐의에 대해 변호하거나 반박할 권리가 주어졌던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유래된 말이다. 성경에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벧전 3:15)는 베드로 사도의 말이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영국의 대표적 변증학자인 알리스터 맥그래스 킹스칼리지 교수에 따르면 변증이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비기독교 세계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당화(변명)하는 것이다. 특정한 이슈에 대해 도망치거나 무시하지 않고 적극 참여해 기

독교를 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이 같은 변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양희송 청어람아카데미 대표는 “아쉽게도 한국교회는 비기독교 사회가 제기하는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문의 배경이나 흐름을 모르니 답변 자체가 방어적이거나 단편적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그러다보니 질문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고 문제제기를 환영하지 않는 정서가 교회 안에 팽배하다”며 “질문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해력 강화를 위해 사회 이해와 인문·철학적 공부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현 부산수정로교회 목사도 “예수가 답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기독교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듣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신앙적 고민이나 회의 없이 일반적으로 믿으라고만 하는 분위기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리적 자성과 함께 지성적 접근

그렇다면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해야 할까. 임 교수는 “한국은 서구와 문화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으로만 접근할 수 없다”며 “윤리적 개선 노력과 지적인 측면에서의 변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이 강한 한국 문화의 특성상 삶의 변화를 통한 변증이 우선한다”며 “교육 수준이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지적인 변증 사역도 체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조사(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대졸자(2년제 포함)는 1098만7223명으로 이는 6세이상 인구(4534만8575명)의 24.2%를 차지한다. 고졸까지 치면 50.3%에 달한다. 이는 30년 전인 1980년 당시 대졸자가 146만5952명으로 인구의 4.4%밖에 안 되던 시절과는 판도가 달라졌다. 이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그만큼 더 이성적으로 변했고 설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양 대표는 “변증은 지적인 차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회 존재 자체가 기독교 진리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16면으로 계속)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오히려 종교 차별

한국교회언론회, ‘서울시와 조계사 인근 성역화’ 관련

지난 2008년 불교계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만들어진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오히려 종교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서울시와 불교 조계종이 3천5백억원을 들여 조계사 인근을 성역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최근 ‘종교차별’ 문제가 없는지 신고센터에 의뢰했다. 국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으로 특정 종교시설 주변을 성역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대해 종교차별 신고센터는 “업무 협약의 추진만으로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사업 계획 수립시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회신을 언론회측에 보내왔다. 반면,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기독교선교회 관련 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해선 “문건 작성만으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사적인 모임인 기독교우회에 대한 불교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셈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공직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판정을 의뢰하는 주제에 따라 편향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회언론회는 특히 불교계의 주장으로 만들어진 신고센터가 주로 기독교를 견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교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국가 기관이 이종적인

자대로 오히려 종교 갈등을 심화시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회언론회는 지난 2010년 문광부에 접수된 공직자 종교차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관련 사례가 7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종교차별 신고센터가 크리스천 공직자의 종교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종교차별을 가려낸다는 정부 산하 기구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한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질 것이라며서 긍정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포스트모던 시대 ‘십자가 구원’ 확신 가져라’

예장합동 심포지엄, 종교다원주의 통신기술발달 등 대응 논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 총회교육진흥원은 2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2014년 총회 교육주제인 ‘생명을 살리는 교육, 생명을 전하는 교회’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종교다원주의와 통신기술 발달 등에 대응하는 전도·선교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다원주의 사회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 발표한 총신대 신학과 신국원 교수는 “포스트모던 시대 다원주의 사회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압도적인 종교가 없는 상황에서 단군상 논란과 사학법 개정, 미디어의 기독교 배리기 등 종교분쟁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기독교인은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가져야 하며,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단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강압

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개신교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타 종교에 대해 무례히 행동하면 더 깊이 고립 될 것”이라며 “기독교인은 타종교인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재물과 인기(유명인)를 이용해 전도·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와 같이 희생과 봉사를 통한 감화를 통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신대 신대원 김성태 교수는 “전도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파악한 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라며 “영적 전쟁 개념을 내세워 마치 악마를 쫓아내는 것 마냥 감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다원적 종교사회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

신기술 발달이 가져온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도·선교 방법도 제시됐다. 백석대 전석재 교수는 “10-30대는 주로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내기 때문에 SNS는 교회가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접촉점”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이기적이며 지나치게 성장주의를 지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그들과 접촉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때론 고민을 들어주며 신뢰를 쌓는다면 복음전파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SNS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를 위해 신학대학이나 선교전문기관에서 SNS 활용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 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군 내 동성애 금지’ 명시 군형법 92조 개정 반대

법 조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임원들은 23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길 정책실장을 만나 군 형법 92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이 조항은 군 내 동성 간 성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군은 주기적으로 군내 성추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보훈처에서 보상하듯 정부는 군 복무 중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신설해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전역자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최근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동성애단체와 함께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장병들이 성적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만들어진 조항으로, 성추행은 군이 분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화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나리자 스킨케어

1회 서비스 가격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비타민+고주파	1회 \$35	10회 \$300
여드름	1회 \$40	10회 \$350
줄기세포	1회 \$120	10회 \$1,000
아쿠아솔루션	1회 \$100	10회 \$800
늘어진팔뚝 슬림	1회 \$30	10회 \$250
배경락	1회 \$35	10회 \$300
등경락	1회 \$40	10회 \$350
전신경락	1회 \$120	10회 \$1,000
하지점맥	1회 \$45	10회 \$400

(Special 기계)

*영구화장 최신기법 - 아이라인/눈썹라인/입술라인

모나리자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이불 빨래 전문업체

Free Pickup & Delivery

Dry Cleaning **Yes**

213-268-6677

빨래하는 시간을 절약 하세요!!!

이불 \$9.99 UP TO
Y-Shirt \$1.50 UP TO
양복 상,아 \$11.99 UP TO

FREE DELIVERY

대형 극세사 오리털 이불
대형 커튼, 유니폼, 단체복
가죽, 카페트, 밍크

한인타운, 다운타운 내 > 수거 > 세탁 > 배달까지 YES 에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목회자 분들께 특별서비스 해 드립니다.

세계 2위? 6위?...

한국교회 선교사파송통계, 왜 들쭉날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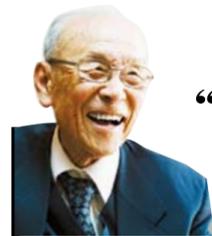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교회 선교사 규모가 최근 통계에서 순위가 밀려났다. 하지만 발표 기관마다 순위가 들쭉날쭉한 데다 파송수도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세계기도정보(Operation World)는 2010년 세계 선교사 규모를 발표하고 10만명을 파송한 중국을 1위에 올렸다. 2위는 미국으로 9만 3500명, 3위는 인도 8만2950명, 4위는 한국 1만9950명으로 집계했다. 고든콘웰신학교세계기도연구구소도 지난 7월 선교사 통계를 발표하고 2010년 기준, 한국이 2만명을 파송해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1위는 12만7000명을 보낸 미국이었다(본보 10월 16일자 29면). 전문가들에 따르면 파송수와 순위가 다른 것은 통계 산출 방식과 선교사에 대한 나라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기도정보는 '개신교 단체와 교회를 통해 선교사로 임명받은 2년 이상 된 타 문화권 사역자'를 기준으로 했

다. 이에 따라 나라별로 선교사 수를 세계기도정보 측에 전달했는데 인도와 중국, 미국 등은 자국 내 선교사까지 포함했다. 실제로 인도나 중국, 미국에는 언어와 종족,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흠어져 있고 이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고든콘웰신학교세계기도연구구소의 경우는 가톨릭을 포함한 범 기독교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연구소는 지난 7월 '1970-2020 전 세계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출 방법으로 "성공회와 독립교회, 미등록, 개신교, 로마가톨릭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선교사 파송수에 가톨릭이나 이단종파의 선교사도 포함됐다. 연구소는 당시 브라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가톨릭이 강한 나라들이다. 전 세계 기독교 관련 통계 기관은 5개 정도로 꼽힌다. 74년부터 통계 결과를 발표한 세계기도정보를 비롯해 고든콘웰신학교세계기도연구

세계기도정보 (단위:명)	고든콘웰신학교 세계기도연구구소
중국 923000	미국 127000
미국 923000	중국 329000
인도 829500	프랑스 221000
한국 19950	스페인 221000
인도네시아 6844	이탈리아 221
중국 6405	한국 221
캐나다 5200	중국 129000
프랑스 4500	독일 129000
호주 3193	인도 121
독일 3144	캐나다 8500

소, 로잔국제복음화운동, 해외선교 연구센터(OMSC), 세계기독교백과 등이다. 대부분 기존 발표된 자료를 기초로 각국에서 보고한 문서와 설문조사 등을 기본 자료로 삼는다. 통계 기관은 이들을 종합해 발표하지만 파송수를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박기호 미국 풀러신학교(선교학) 교수는 "한국교회는 외국으로 떠나야 선교사로 인정하지만 인도나 브라질교회 등은 국내 사역자도 선교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파송수에서 차이가 난다"며 "선교사 개념이 국가마다 다르고 통계 기관 등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교사 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기선교사가 줄어들면서 단기선교사까지 통계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선교사가 줄고 있다. 남침례교 해외선교회(IMB)만 하더라도 2009년 5656명에서 2011년 5014명, 2012년에는 4885명으로 줄었다. 한국교회에 선교사 파송 2위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90년대 후반이다. 당시 2위는 7800명까지 기록했던 영국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98-2000년 사이 증가했고 2000년 8103명을 기록하면서 역전됐다. 한국 역시 통계 결과가 다르다. 대표적 통계 기관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는 2012년까지 파송된 선교사를 2만4742명으로 집계했다. 반면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1만9798명으로 발표했다. KWMA가 회원교단과 선교단체, 비회원까지 파악해 합산했다면 KRIM은 선교단체 파송, 2년 이상 장기 선교사 등의 기준을 적용했다. 선교 전문가들은 2위든 6위든 순위보다는 어떤 선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중국 KWMA 사무총장은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는 나라가 선교사가 없는 나라도 없다"며 "지금은 한국교회만 선교한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선교의 질적 향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지일 칼럼 (14)

“본대로 들은 대로”

레이더의 추적

현대 전쟁은 상식을 초월한 일이 너무 많다. 인디애나 주에는 레이더망으로 미국의 절반 이상을 맡아서 비행기의 소재 그 비행한 방향을 다 포착할 수 있다는 데를 가 보았다. 높은 탑에 올라 텔레비전 화면 같은데 조그만 별 같은 흔적을 포착하여 그 가는 방향을 추적하여 어디 착륙하는 것을 알아낸다. 여객기는 물론 전투기를 추적한다. 아군이었거나 만약 적기가 온다 할 때는 추적하여 찾아내는 고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법이 생길지도 모른다(이미 : 편집자주). 공중이나 해상을 이 레이더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행장의 가장 좋은 시대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비행장이 요새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물론 전문지식이 없는 자라 이런 부분에 어떤 설명을 가하지는 못한다. 영적 추적이라 할까 목회자는 항상 교인들에게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주일 밤 후 수기도회에 단에 선다. 꼭 출석하는 분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가 혹은 아픈가 이런 염려가 앞서기도 한다. 어떤 때는 유명한 국제통역가가 있어 그 점에 낙인이 쳐지는 것이다. 그 후에 만났으니 내 목지가 아니었다. 오랜 후에 자기들이 서로 하는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진다. 그날 오후도 못오고 그 경기를 구경했다는 이야기였다. 역시 내 영각에 생각했던 대로구나, 그 확인이 되었던 때가 있었다.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양의 영을 어떤 의미에서 레이더 같이 추적하고 있다. 더욱 요직에 있어 교인들에게 본이 될 장로나 권사는 목사의 눈에 누가 나오지 않은 것이 재빨리 떠난다. 그 영이 추적된다.

레이더에 걸리게 되어있는 것같이 목회자의 그 영의 추적은 거의 확실하다. 이는 그 영에 관심이 그만큼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를 교인들이 더욱 장로 또 중직들이 알기를 바란다.

게하시가 나이만 장군을 추적하여 그 탐심을 채웠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왕하6:26) 엘리사의 영이 게하시를 추적하였음이라 실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139:7) 피할 수는 없다.

이런 면으로 하나님의 영이 레이더 같은 데에 비하리요. 내 영을 언제나 추적하여 어디 있으며 무엇하며 어디로 가는지 일일이 다 보고 계심에 그에게 숨길 것이 없으리만 게하시 같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왕하6:25) 때로 물으신다. "어디서 오느냐"(왕하6:25) "네가 어디 있느냐"(창3:9) 때로 내게도 물으신다. 언제나 그가 물으심에 그 뜻이 계시다. 언제나 그가 물으실 때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소망을 내 어디서 영을 말씀드려야 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마5:37) 못 갈데 갔다 해도 못할 일을 했다면 그만 이런 일도 했습니다. 직고하면 그만이다. 내 대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어 나를 변호하신다. 범죄하지 않았다. 죄 없이는 변호가 아니시다. 그가 못할 일을 하여 범죄하였고 가지 않을 곳에 가서 범죄한 것을 우리 변호사 대언자도 그대로 시인하시면서 그 죄를 자신이 담당하심이라. 제가 했습니다의 변호사이다. 죄 값이 지불되어진 고로 나는 무죄하다, 나의 죄는 그 보혈에 세척함을 받은 바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복음이다. 복음의 역할이 여기 있는 것이요, 복음을 받음이 믿음이 이것이라. 이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세상 법에 걸려 사법당사가 시형될 때 변호사에게 위탁한다. 그 변호는 증거가 불확실하다고 죄 없이는 변호사 그 죄에는 형량을 감하게 하는 변호 등일 뿐이다.

복음영역에서 내 대언자 내 변호사인 그리스도는 죄 경중의 변호는 아니시다. 다만 내가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변호이니 검사와 싸울 것이 없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위증이라니의 변론이 쓸데없다. 죄는 다 시인되었고 그 죄를 담당하셨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다. 내 빛을 완전하게 갠아주셨으니 완전한 결제를 내어 주심이다.

영이 나를 추적하여 물으실 때 그대로 직고만하면 거대한 변호는 대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손의 못자국으로 변호해 주신다. (1996년, 1권)

“이젠 ‘4/14 윈도우 운동’ 이다”

세계 70개국서 850여명 참여 성향

'4/14 윈도우 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4/14 윈도우란 4-14 세 사이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 선교하도록 하자는 복음화 운동이다. 미전도지역 선교를 위한 '10/40 윈도우(북위 10도, 남위 40도 사이에 위치한 이슬람·힌두·불교 지역)'를 주장했던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박사가 2009년 제안했다. 4/14 윈도우 운동은 지난 15-18 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씨앗' 대회를 개최하고 전 세계 70여 개국 850여명의 지도자들이 모여 어린이·청소년들을 선교의 협력자로 양육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목회, 가정, 미디어, 신학, 선교학,

교육, 교회 등의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변혁한국' 허종학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교회의 출산 장려를 비롯해 사회·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어린이 돕기, 기독교교육 커리큘럼 발굴 및 공유, 안전한 복지 시설 제공 등이다. 대회에는 루이스 부시 박사를 비롯해 뉴욕 프라미스교회 김남수 목사, 4/14 글로벌 운영위원회 방방 부디안도 의장 등 선교학자와 목회자,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 등이 참여했다. 4/14 윈도우 운동은 소개된 지 4년 만에 급속히 확산돼 남미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동아시아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럽,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할렐루야추구단과 뉴욕 프라미스교회는 추구 경기를 개최해 복음을 전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탈북자 8575명 조사 2013 북 종교자유백서

"2009년 할머니가 중국에서 과일 박스에 성경책을 담아 돌아왔는데 집에 경비대들이 들어와 과일을 먹으려고 뒤졌다가 성경책이 나왔어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는 증언이다.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다고 한다.

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7년 이전 탈북자와 2003년 이후 탈북한 응답자도 같은 증언을 했다.

반면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0.5%였다. 종교활동으로 체포될 경우 57.7%는 정치범수용소에, 11.9%는 교화소(한국의 교도소)에, 28%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종교자유백서는 "북한 당국은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 실제로는 종교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2000년대 이후 보고된 종교 박해 관련 사건만 해도 1034건"이라고 밝혔다. 보고된 사건 중에는 종교활동을 한 것이 517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성경 등 종교물품 소지 246건(23.8%), 종교전파 120건(11.6%), 종교인 접촉 51건(4.9%) 순이었다.

종교사실(교회, 성당, 절)에 합법적으로 가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8175명 중 61명(0.7%)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밝힌 것과 달리 일반 주민들의 종교활동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 중 1.3%는 북한에서 종교활동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자신이 종교활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타인의 비밀 종교활동을 목격한 응답자가 평균 5.3%였다. 또 북한에서 성경을 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평균 4.2%였다. 특히 2000년 이전 탈북자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탈북자는 단 7명에 불과했지만 그후 성경을 본 탈북자는 399명이었다. 최근 북한에 성경 유입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탈북자의 현재 종교 분포는 개신교 48.0%, 천주교 10.6%, 불교 9.5% 순이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은 "북한은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 활동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할 만큼 위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사범 대부분 정치범수용소 구금”

탈북자 99.7% “북 신앙 자유는 거짓”

요. 할머니는 경비대에 잡혀 보위부로 끌려갔고 수용소에 갇습니다." "2008년에 아는 분이 종교죄로 잡혀갔어요. 주일마다 모여 예배를 했거든요. 라디오도 갖고 있었어요. 대학졸업생이고 4개 국어를 했어요. 이 사람은 보위부에 잡혀간 뒤 행방불명됐어요." 탈북자들이 증언한 북한 당국의 기독교 박해 사례다. 북한에서 종교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부터 지난 7월까지 탈북자 85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북한 종교자유백서'를 24일 발표했다. 응답한 8012명 중 7985명(99.7%)은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답해 북한의 종교자유 선전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에서 일반적인 종교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헌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 2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월, 6시)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45(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6:00(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성경(금): 오전 5:30 EM 예배: 오전 6:30 EM 대학학: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예배: 오전 11: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후 6:00(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 WAVE) 영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1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후 6: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영성)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중·고대 청년부: 오후 7:30(토)	새천안교회 담임목사 :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미주영국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전 12:30(영성) 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매일) 금요일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4: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성)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션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성)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6:00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준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4부 예배: 오전 4:00 수요일 찬양: 오후 7:3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수요찬양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선교 편지 온두라스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한편의 드라마 같은 당시의 월남전에서 꿈과 낭만이 어리고 땀내를 뿜는 풍기던 하얀 도복이 허공을 가르던 옛 추억이 새로워진다.

지금의 내가 온두라스 육군사관학교에 와서 태권도를 생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다시 전장의 무도인으로 강인하고 고귀한 뜻과 사랑을 영원토록 나누고 있는지 묻고 싶다.

과월 45년! 자유 월남의 패망과 함께 그 시절 교관단 막내동생인 내가 어느새 인생의 불혹의 나이에 접어 들었으니 가는 세월이 어찌 빠르다고 말하지 않으리오!

당시 푸른 제복과 태권도인인 공통

점이 출신, 고향, 근무지 및 소속, 군 계급, 연령, 병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각각각색의 신부들이 몸담았던 주월태권도 교관단!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일찍이 평화와 정의의 사도로서 지금은 사라져 간 미국 땅 자유 월남에서, 단순한 태권도 차원을 떠나 야우스(교수님) 보수(무사님) 최상의 존칭 속에 조국 자유 대한의 일을 떨친 참된 용사이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대단한 우리 자랑이요, 긍지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날의 영광을 오늘에 되살려 국기(國旗)태권도의 명실상부한 세계화에 기여하고자하는 무도인의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온두라스 육사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를 길러낸 것이다.

지난 서울 올림픽에 해외동포 자원봉사자 통역으로 참가한 나는 그때에 세계인이 가져다준 올림픽 정신의 이상과 실현을 통해 많은 꿈을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옛말에 훌륭한 선생이 훌륭한 학생을 길러낸다는 말이 있다. 나는 이곳 온두라스 육사에서 3년간 눈물과 땀을 흘리며

수고한 것이 결국 육군사관학교 창설 55년 만에 멕시코 한국 대사관의 이민복 무관님을 모시고 지난 9월 26일 육사 생도 3명(3학년생)을 첫번째 유단자(BLACK BELT)로 배출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곳 현 대통령인 PORFIRIO LOBO SOSA 대통령을 비롯하여 합참(육해공) 정 군관의 도움이 나를 오늘에 있게 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제 내가 한 일이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내가 지금까지 태권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축복을 어찌 말할 수 있으랴! 나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오늘도 육군사관학교 제너럴 후란시스코 모라잔(GENERAL FRANCISCO MORAZAN) 운동장에는 총검술, 유격, 격파, 겨루기(대련) 등이 하얀 도복을 입은 생도들의 함성 소리로 크게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비바 온두라스(viva honduras) 아이러브 온두라스.



육사 교장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고 육사교장과 한국 이민복 무관님과



태권도 승단 시범 및 격파 장면



무궁화나무가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십자말 • Cross Word (17)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가로 푸는 열쇠>

2. 브리스의 또 다른 이름(행18:18).
6. 남달리의 한 성읍(수21:32).
8. 찬송가509장 후렴, 그 손 ○○○ 만져라...
10. 바울을 대신하여 로마서를 쓴 사람(롬16:22).
11. 바로스의 아들이다(시10:25).
13.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 죽인 강(왕상18:40).
14. 근심하는 마음 또는 근심하는 일(욥7:13).
15. 모진 생각, 나쁜 마음(신15:9).
16. 한국 국기.
19. 어류에 딸린 척추동물의 총칭(막6:41).
21. 장사(葬事)할 땅, 묘지(창23:4).
22. 남을 헐뜯고 꾸짖는 사람(딤후1:13).
24. 못을 박고 빼는 연장(렘 10:4).
26. 갈대로 만든 지팡이(사36:6).

<세로 푸는 열쇠>

1. 길의 양쪽 옆, 노방(시110:7).
2. 낚새 지파의 율람의 아들(대상7:17).

3. 바벨론에서 동족 5만명을 영솔하고 귀환한

- 스룹바벨의 부친(스3:2).
- 요단강 동편의 가장 중요한 성읍의 하나(삼상30:27).
- 일의 끝장, 일의 귀결되는 마당(벧전1:9).
- 다윗의 자손(대상3:21).
- 아들과 손자(출34:7).
- 구약의 네 번째 책.
-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제물 부분(레2:2).
- 아주 북쪽 지방(겔47:17).
- 도장으로 사용되는 가락지(창41:42).
-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말에 이곳에서 1년 반을 유하면서 아굴라와 함께 전도하던 곳(행18:8-11).
- 헐어서 깨뜨림(렘5:10).
-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어 반들반들하게 된 잔돌(왕하19:28).
- 사람의 직업, 성질, 행동을 나타내는 말에 붙여 그 사람을 낮게 일컫는 말. 미○○, 풍각○○ 등(잠미사).
- 고멜의 아들(창10:3).

십자말 정답

바	루	바	미	기	라	아	아	아
아	굴	루	기	우	루	미	아	아
라	차	기	우	미	미	미	미	미
바	루	바	미	기	라	아	아	아
조	바	안	인	미	미	미	미	미
안	기	우	미	미	미	미	미	미
미	기	루	기	기	기	기	기	기
조	미	기	기	기	기	기	기	기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9-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ny.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나도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bc.org Tel: (718)279-2757, nybc,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1:00 화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주일학교성경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주일학교성경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어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규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5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3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q.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8: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8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 아 예: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kbccny.org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래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한): 오전 11:45 타워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택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영 아 예: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410)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주,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0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전 7: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 Paso 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8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주일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 오후 8:00 www.gospelvision21.org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기도회: 새벽 5: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어)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파조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 새벽기도회: 주일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www.kpcpz.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8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영아회중: 오전 11:00 영아회중: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4070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46)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교회목회자)

오늘은 미국 대중교육에 대한 우리 한인교회의 공헌, 그 두 번째 예로 “한국 전통의 우리 의식을 통한 개인주의로 인한 비인간화 극복 및 삶의 의미 회복에의 교육적 공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미국사회와 근대화 시발부터 그 미국사회의 문화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를 비롯해서, 현존하는 거의 모든 현대사화들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왜곡은 아마도 비인간화의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을 험겨워하며 답답하여 어쩔 줄 모르다 결국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혼란과 고통 속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인간화가 우리 사회에, 특히 우리가 속한 미국사회에 만연하게

받아 이타적인 사랑과 관심에서 높은 가치를 찾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부인하게 만들었고 삶의 무의미함을 막막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미국사회는 이 개인주의를 매우 가치 있는 문화의식으로 자리매김 해왔고, 그 부정적인 산물들에 대해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오늘날 미국교회들은 개인주의로 인한 비인간화와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창조와 뜻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는 “우리의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두레, 품앗이, 계, 혹은 향약 등의 다양한 실천들로 구체화 되어왔습니다.

주산업이 농업이었던 만큼, 이러한 실천들은 주로 농번기 때 많이 가지화 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함께 돕고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돌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질기 때에도 잔디와 축제 등에서 함께 축하하고, 서로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고, 필요한 이들에게 가진 것을 베풀고, 또한 함께하는 놀이들을 즐겨왔지요. 본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은 이러한 우리의식과 그 실천들은 상호 호혜적 관계맺음과 상호의존이라는 가치들을 중요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이웃을

미국 대중교육에 전통적 한인 “우리 의식” 교육 비인간화 극복 및 삶의 의미회복에 영향 끼쳐야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병폐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의, 지나친 과학기술 발달에 대한 맹신,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문화적 오만과 편견 등이 그 예들이 되겠지만, 오늘날 미국사회의 비인간화를 추동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 가장 파괴력이 큰 문화 의식적 부분 즉 “개인주의(Individualism)” 및 “이에 대한 미국 문화전반의 지나친 강조”에 대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주의는 한때 집단주의(collectivism)를 극복하는 긍정적인 민주적 사상으로 회자되었던 적이 있는 만큼 미국사회에서 매우 가치를 두어온 파괴력이 왕성한 사회문화적 의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이기주의와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이는 사람들의 비인간화가 가속화시키고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돕는 배필의 필요를 나타내셨으며 민족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서로 도우며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시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지향적인 존재이며 또한 사회적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타적 사랑, 그 모범을 따르도록 독려하면서 개인주의에 정면 대응하고자 해 왔지요. 하지만 이러한 기독교적 성경적 인간관계의 본을 미국사회 전반에 파급시키고 이를 미국사회 대중에게 교육시키는 일은 이미 비기독교인의 수가 과반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습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인교회는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비인간화 극복 및 삶의 의미회복이 시급한 미국 대중전반을 향해 그 일원으로서 우리 한인교회 또한 개인주의를 맞서는 교육내용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방안들이 있었지만 저는 오늘 우리 한인교회가 한국 전통의 “우리문화(We-ness Culture)”를 미국 대중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위와 사역에 이바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의 문화와는 다르게, 한국의 전통적 문화 풍습과 정서는 “우리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부인하고 “우리”만을 강조하는 집단주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가 자연스레 녹아있는, 나를 포함한 우리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입니다. 공존과 함께함, 그리고 나눔과 협동에 가치를 두고, “나”에게 이로운지 아닌

향한 사랑과 배려가 있었습시다.

이는 그 태생적 기원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시신 바로 그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식의 가치들과 그 실천들은 우리 한인교회와 미국사회에 바르게 소개하고 모범을 보이고, 함께 공유하기를 진심하게 독려할 수 있다면 이는 개인주의로 인한 문제들을 극복케 하는 미국 전반의 대중 교육을 위한 힘이고 풍성한 자료들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주의의 부정적 모습들인 비인간화와 삶의 의미 상실을 극복하고 치유하고 또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도록 추동하는 선한 교육적 영향력을 미국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점을 위의 방안이 본질적으로 선하고 효과적인 것이라 동의해 하더라도, 과연 우리 한인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의식이 얼마만큼 남아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미국사회를 향해 선한 교육적 영향력을 끼치고 풍성한 교육적 자료들로 제공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남아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식 및 실천을 미국사회를 향해 소개하고 범예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까? 허나 사실 한국사회도 이미 개인주의가 근간이 된 서구화가 완료되었고 그 안에는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16면으로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승축할 때 복이 온다(시134:1-3)찬249장

신자는 하나님을 승축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어디서 승축합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의 집에서 승축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당은 여호와를 승축하는 장소입니다(행2:42-47). 무엇보다 하나님과 마리아처럼 영혼 속에서의 승축이 일어나야 합니다. 둘째, 누가 승축합니까? 여호와와 모든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암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자

의 주된 일은 하나님을 승축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셋째, 어떻게 승축하며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승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항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천상장로들과 같이 면류관을 던지며 찬양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승축자의 복을 잃지 마십시오.

화 여호와를 승축하라(시135:1-21)찬46장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치는 본문은 여호와 찬양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우리는 찬양을 위해 택한 백성이라고 합니다(4). 바울처럼 소속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사실이 분명할 때 찬양이 나옵니다(엢1:3). 둘째,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섭리주이라고 말합니다. 5-6절에 천지에 그의 기뻐하는 일을 다 행하신 것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삼라만상의 운동을 지

점 간섭하심을 보고 감사하라 합니다. 나를 향한 그의 자상한 간섭을 생각하면 할수록 무로가 되며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셋째,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13-18). 그는 다른 신과 비교될 수 없는 독일무이(獨一無二)하신 신이십니다. 바른 신관을 가질 때 바른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섭리,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을 힘 있게 찬양합니다.

수 하나님께 감사하라(시136:1-16)찬44장

성도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사가 나오니까?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묵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모든 신의 신이요 주의 주가 되시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우리 마음에 감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히11:6). 둘째, 창조 사건에 보여진 그의 선과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땅위에 물을 펴시고 큰 빛을 만드셨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을 찬송해야 합니다. 셋째, 구원 사건 속에 보여진 그의 선과 사랑을 음미할 때 감사가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통과케 하시며 바나나를 앞으시며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을 하나로 요약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깊이 생각할 때 감사가 절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 감사할 이유(시136:17-26)찬308장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본문은 감사의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원수를 멸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17-20). 큰 왕을 치시고 유명한 왕들, 즉, 바산과 옥을 죽이신 하나님은 진정 용사이셨습니다. 내 대신 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21-22). 이스라엘에게 가난한

의 기업이 예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업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거저 얻은 기업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비천한 것에서 건져주심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23-26). 비천의 자리와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완전한 해방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누리며 찬양하는 성도로 삼십시.

금 때역한 백성(사30:1-33)찬317장

본문은 구약교회인 유다의 반역에 관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첫째, “때역한 자식”(1)이란 말처럼 그 배반은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치 않은 계교와 그의 영에서 나오지 않은 백성을 하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싫어하고(10-11) 애굽을 하나님처럼 의지했습니다(2). 그 결과 수처와 수욕을 당하며(3, 5) 무익하며(6)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듯이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13-14). 배반하는 근본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인간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런 배반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회복시키십니다. 세 가지 회복이 일어 납니다. 1)그들의 치료가 이루어집니다(18). 2)상처를 싸매십니다(26). 3)원수를 멸하십니다(31-33).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뜻에 맞춘 순종자로 살아갑시다.

토 재난의 도래(사31:1-9)찬336장

본문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째, 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4, 6). 말과 옹사와 풍요를 의지하는 애굽은 심판의 경고를 받았습시다. 그러나 시나이에 강행해 이를 세우려고 대신 싸우신(4)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워 하나님나라의 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의 의를 전심으로 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둘째,

그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며(5) 원수를 두려움으로 쫓아내시며(9) 시온에 불(빛)(9)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시다. 신자의 영적싸움에 그분의 긍휼의 손이 다스립니다. 재앙이 몰려오는 시대에 그의 의와 긍휼이 임을 맞춘 성령 충만에 거역하고 항상 힘써야 합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주님 은혜 따라 대대하게 나아갑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622-1(131-231)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방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9419~5, Fax. (062)522-4834 500-170 경곡역교차로 북구 교문길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영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곡동 교당길 111번지 임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8: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육부)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길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56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길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부예배: 오전 5: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안국동 복동길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니다) www.seongsil.or.kr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길 713-26호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길 713-26호
수령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2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문동 416-1(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인원동 137번지	시은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Fax.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로 415 www.yangok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길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방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82)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심방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요신학교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심방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건택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심방기도회: 오후 9:30(30분) 금요심방기도회: 새벽 5:00, 7:00, 9:00 금요심방기도회: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az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RI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호주기도회: 아침 7:40 유. 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kn@hanjkn.net Cervantes N. 1001, Asuncion-PARAGUAY

특별기고

한국신학교의 선교적 사명 (상)

제한된 접촉국가들(Restricted Access Nations)내에 심한 기독교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원주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는 교인들은 분산되어 가정교회로 전환하거나 더 나아가 교회 문을 닫을 가능성도 보인다. 지 교회와 가정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제한된 접촉국가들은 전세계 55개의 이슬람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중국, 베트남, 라오스, 북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속한 교회들은 다양한 압력과 핍박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한국에 약250개 신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미의 한인신학교와 합하면 300개가 넘으며 수만 명의 한국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한국에 신학박사(Ph.D)와 기독교교육학박사(Ed.D)를 취득한 신학자만 2,000명이 넘는다고 하며 현재 종신과 백석대학을 포함하여 한국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박사코스를 공부하는 학생 수도 200-300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에도 한인신학교가 캘리포니아주에 46개, 뉴욕주 10개를 포함하여 합계 85개 존재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슬람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에 속해 있는 교회의 공통적인 이슈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의 수가 심히 부족하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 이유 어디에 있는 것인가?

1. 정치적 변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국가들의 정치적 혼란은 지난 10여 년간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이란 등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슬림 테러

간 236명의 가정교회 교역자를 비롯하여 1,441명 기독교인을 구금했고 9명이 재판을 받았다고 보고되었다(미주크리스천신문, 2013년 3월9일, p.1).

2. 핍박 속에 교인감소와 교역자 부족난

자카르타에서 열린 ATA신학자 토론회의 한 프로그램은 핍박받고 있는 국가에서 참석한 이슬람국가와 중국의 신학자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헛발트리 나티신학대학원 총장 김상복 박사가 사회를 보면서 요르단에서 참석한 한 신학자에게 “왜 중동 지역의 기독교인 수가 계속 감소합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세 가지였다. 첫째로, 무슬림남자와 기독교인 여자와의 혼성결혼이라 하였다. 국법에 의해 무슬림남자는 기독교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나 자녀는 무슬림으로 키워야 하며 그 반면에 기독교인 남자는 무슬림여자와 결혼할 수 없으며 만일 결혼하면 부부가 다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요르단에서는 1/3의 기독교 여성이 무슬림남자와 결혼하여 이슬람으로 전환하며 이집트에서는 매년 15,000명의 기독교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하였다. 혼성결혼으로 매년 17%의 기독교인이 감소되고 있다(Developing Leadership for Witness in an Age of Oppression, ATA Consultation paper, Aug. 2010, pp.12-14).

둘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유국가인 유럽과 북미로 이민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인한 기독교인의 감소율은 13.3%(1894년), 7.59%(1945년), 2.25%(2000년)로 계속 되고 있다. 셋째로 정부가 종교자유 제한 정책을 창설하여 이슬람국의 사리아법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정부 정책과 사료로부터 받는 기독교인의 압력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의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 교회 지도자의 수가 계속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교역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로 부터 사라질 때 교인들이 흩어지며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 양성은 그 지역의 교도생존과 성장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다음호에 계속)

가정사역 칼럼

(7면에서 계속)

예를 든다면 “엄마!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해요?”라고 묻는다면 “공부를 잘하고 싶구나!”라고 말하며 맞장구를 쳐주면 된다. 또 “친구 아무개가 나와 놀기 싫다고 해요”라고 하면 “너는 친구 아무개와 가깝게 지내고 싶구나” 또는 “너는 그 친구가 너와 놀기 싫다고 해서 섭섭하구나” 라고 마음을 읽어주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자녀들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데이트 시간이 나 티타임을 기다리며 준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하고, 자신의 일에 책임지려는 노력을 보인다. 부모들도 자녀와의 대화를 즐기며 자녀와의 데이트나 티타임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전해줄 수 있다.

이메일: milykum@gmail.com

만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5면에서 계속)

“우리”를 생각하라고 “이웃”을 배려하다 보면 “내”가 무너지게 되는 듯 보이는 안타까운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 것도 같습니다. 또한 개인주의가 만연된 미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우리 한인들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듯 합니다. 특히 최근의 미국 정치와 경제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의 삶에서 “우리”를 생각하라고 고령할 여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저 “생존”이라는 것이 제일 화두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의식”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어려울수록 나누고 힘들수록 함께 도왔습니다. 그 속에서 더욱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상황들이 우리 한인들을 개인주의로 더욱 가파르게 내몰고 있는 듯이 보이는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내일을 일구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격려하고 위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물이나 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인데도 그저 그렇게 휩쓸려서는 안되니까요. 시편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동거하며 서로 위하며 함께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로 되어있는 존재이니까요(시편 133:1-3 참조).

우리 한인들 마음속엔 비록 작을지언정 “우리의식”에 대한 가치와 그 실행에 대한 인정과 그 실천에 대한 로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론 조금 다른 형식들이지만, 서로 돕고 섬기고 아끼는 아름다운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대중교육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우리 한인교회 교육의 미래적 과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동면 중일지도 모르는 그 우리의식 및 실천들을 “되살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식과 실천들을 되살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신앙적 근거들로 그 선함을 공고히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미국 사회와 대중들에게 바르게 소개하고 공론화 시켜서 선한 교육적 영향력을 끼침으로서 미국사회가 개인주의로 인한 비인간화를 극복하고 잃어버린 삶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인교회교육의 미래적 과제 중 하나인 미국사회의 일원으로서 “미국사회에 전방을 교육하는 일에 책임과 소명을 가지고 공헌해야 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독교 안티, 대응 어떻게...

(12면에서 계속)

그동안 한국교회에 변증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32년 발간됐던 ‘한국선교연감’은 당시 창립하던 신비주의 신앙을 질타하며 ‘열광적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지적(知的) 신앙을 함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록했다.

60-70년대 부흥 성경회를 시작으로 총동원주일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몇 년 전부터는 세대와 직업에 따른 맞춤형 전도가 선을 보였고 3년 전 시작된 서울신학대의 ‘인문학 강좌’와 양화진문화원의 ‘목요강좌’ 등은 세상을 읽는 시각을 넓혀주고 있다. 국내 저자들의 노력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시작된 큰나무교회(박명룡 목사)와 변증전도연구소(소장 안환균)의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는 변증

사역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다. 두 기관은 오는 26일 서울 방화동 큰나무교회에서 제2회 기독교변증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왜 예수가 유일한 답인가를 증명한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프란시스 쉐퍼(1912-1984년)는 “정직한 질문에 진실한 대답을 모토로 55년 영국에 ‘라브리’를 창설했다. 영적 갈증에 목마른 젊은이들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쉐퍼는 함께 고민하며 성경적 답변을 제시했다. ‘개독’이란 말로 수치를 당하는 한국교회는 쉐퍼의 모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안환균 변증전도연구소장은 “지금 은 목회자나 교회가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신자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시대”라며 “목회자들이 변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증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신학교육 수준 아시아43개국 중 최고 핍박지역 교회 지도자 양성에 활용 기대

로운 한국신학교 선교운동시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필자는 절실히 느낀다.

매 3년마다 열리는 아세아신학연맹(Asia Theological Association-ATA) 신학자 토론회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4일간(2013년 8월12일-15일) 열렸는데 아시아의 30개국에서 235명의 신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신학토론의 주제는 “성서적 상황신학과 신학교육”이었다. 한국에서도 ATA로부터 인가를 받은 11개 신학교에서 약20명 신학자들이 참석하였다.

1970년 싱가포르에서 창립된 ATA는 지난 43년간 많은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에 있는 약 1,300개 신학교 중 250개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ATA멤버가 되어 같이 활동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하여 한국과 북미의 한국신학교가 아시아교회 지도자 양성에 특별히 제한된 접촉국가의 신학교육을 도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있다(세계한인교회 주소록, p.51 참조). 이렇게 많은 한국 신학교와 신학생이 있다는 사실은 세계 교회를 놀라게 할 수밖에 없다.

ATA가 창설된 1970년에는 한국어로 쓰여진 신학서적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한국 신학 서적은 영어로 부터 번역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한국 신학자들이 쓴 신학책들이 수다하며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많은 신학서적을 출판하게 되었다. 오늘의 한국 신학교육 수준은 아시아 43개국에서 최고로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유럽과 북미 신학교들이 너무나 신학논쟁에 치우치면서 영성을 약화시키며 교회 성장을 둔화시킨 것같이 오늘의 수많은 한국 신학자들도 학문적인 신학논쟁에 치우치며 한국교회의 영성과 전도 선교를 등한시하여 한국교회 감소의 한 원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건은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을 공포 속에 넣게 되었다.

예를 들어, 16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집트 수도의 한 콕교회회는 주일아침 예배 때 무슬림형제단의 테러 폭탄사건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고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예배를 취소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2013년 8월31일, p.6) 결과로 교인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교회참석을 자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 북경에 3천여 가정교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슈양교회는 2011년 부활절 때 정부가 교회 건물을 압수하고 부활절예배를 교회에서 보지 못하게 함으로 한 공원에서 부활절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으나 경찰관이 버스를 동원하여 교인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까지도 슈양교회 교인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의 정권이 들어선 후 더 온화한 종교정책을 기대했으나 그와 반대로 가정교회 핍박이 더 심해지고 있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2012년 일년

I. 한국 신학교육의 놀라운 성장

II. 핍박받는 교회의 심각한 문제: 교역자 부족난



미주기아대책(KAFHI)은 가난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합니다



자메이카를 아시나요? 설마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플로리다에서 두 시간도 채 되지않는 카리브해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달리는 사람, 우사인 볼트의 나라이고, 레게음악의 창시자 밥 말리의 고향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커피종에 하나라고 일컫는 블루마운틴은 이 나라의 최고봉인 블루마운틴에서 추수된 커피를 말합니다.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 선택하는 휴양지 중에 하나인 몬테고베이는 자메이카 서북쪽 해안도시입니다. 여행잡지에서 사진으로 보는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의 대표적인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자메이카의 깊은 속살을 보지 않으면 자메이카는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메이카이지만 다른 한편 세계적인 총기, 강도 사망률 5위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수도 킹스톤은 마약과 강들의 도시이고, 평일 대낮에도 심심치 않게 총격전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그 도심에는 자메이카인들도 들어가기 꺼려하는 흑인 빈민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엔 영국 식민지시대에 설립된2000년된 웨슬리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지붕이나 창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비가오면 예배당 안에 비가 옵니다. 건물만큼이나 나이트 노예의 후손들이 10여명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들 떠 보지 않는 위험천만한 이곳에 국제기아대책 한인본부(KAFHI)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일학교를 오픈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그녀를 [무모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자메이카 킹스톤 빈민가에 한 선교사가 희망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조미선 선교사, 그녀는 여자, 아니 과부입니다. 외동 딸 생명을 데리고 그곳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만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 식구가 자메이카 땅과 그 아이들을 품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역 3년만에 과로로 쓰러진 남편 이선구 선교사는 그 길로 조미선 선교사와 어린 딸을 두고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어린 딸 생명이 성장기에 있지만 영양부족으로 체나이 토레보다 4-5살은 어리게 보일 만큼 건강하게 자라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땅에서 남편 뒤를 이어 어린 딸과 함께 자메이카에서 계속 어린이 개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이 선교사의 뉘가치 더한 사랑을 자메이카 땅과 그 땅의 아이들에게 쏟아부어주고 있습니다. 조미선 선교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이 아이들이 절 이렇게 행복하게 잘 혹은 몰랐어요! 정말!”



평일엔 탐비락 유치원 사역으로, 주말과 주일엔 웨슬리교회 주일학교 사역으로 매일 아이들에게 돌려 쏟어 살아갑니다. 그녀는 그곳이 행복동산이라고 고백합니다. 비가 세는 판자집 같은 교회와 어린이센터에서 조선교사님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이고 생명이었습니다.

KAFHI는 조미선 선교사(자메이카 유일한 한인선교사)의 자메이카 빈민아동교육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아대책 미주 한인본부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KAFHI)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www.fh.org, kafi@fh.org, shchung@fh.org, 847-296-4555, 703-473-4696

명예이사장 및 설립자 이원상 목사
 이사장 배현찬 목사 부이사장 이종관 목사 노진준 목사 이순근 목사 최희선 집사
 이 사 권석찬 김광택 김사무엘 김세용 김승의 노승환 신구용 신진우 안인권 이계준 이병관 이애실 이영성
 이현애 임철성 장원일 장재욱 정세훈 조용수 진용태 차기영 홍선희
 회 장 김형근 목사
 사무국장 정승호 목사 후원회장 백선중 선교사 CFCT 간사 김은실 이 에스디 코디네이터 노희중 장로 신구용 장로